

-  호인: 린이 많이 아픈...
네
-  Kaming (GM): =====
다음 씬플레이어는 호인짱이군요
-  호인: 옛...
결국 학교로 가는거스로 결정됐던가요
자 일단 다들 초대 받으시구
-  Kaming (GM): 일단 전회에서 여러분들은 변화가에서 나타난 눈알이 엄청난 모노노케들과의 전투를 마치고
-  호인: 아 맞다
그 남자가 코스프레점에 있을거라고
들었었죠
-  쿠사카베 린: (음음)
-  호인: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실치 않지만 암튼
-  Kaming (GM): 하얀남자의 대한 정보와 자신들과 같은 게임기를 먼저 받아간 나나모리학원의 여학생에 대해서
들었지요
-  호인: 일단 다들
초대 받으시죠
-  쿠사카베 린: 넵
등장굴린다아
-  Kaming (GM):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향하려나요
-  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- $$(\boxed{6} + \boxed{1})$$
- $$= \boxed{7}$$
- 3과 6을 체인지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어디로 가나영)
-  쿠사카베 린: 둘로 갈리려나요?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카밍 이전맵좀 열어줘 영력 보게)
-  호인: 당장의 단서는 여학생 하나가 게임기를 받아갔다
그 여학생은 누구인지 뻔하지만
-  쿠사카베 린: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!
-  호인: 암튼 린과 세실리아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다
라는거뿐
-  쿠사카베 린: 어라 세실리아 같은 학교던가 (뒤적뒤적)
-  호인: 아닌가



Kaming (GM): 지금 이전맵으로 열려있는덴



호인: 세실리아네 학교구나



쿠사카베 린: 아 전투맵이요?



Kaming (GM): 전투맵 말씀하신거였나



Mekabob: 1 2 4 4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6552...ㅇㅋ



호인: EE66 적절하군



쿠사카베 린: 아 저게 마지막이었구나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다시 롤백!



쿠사카베 린: 어차피 3을 6으로 바꾸는 것은 변화없습니당



Kaming (GM): 그럼 일단 전원 초대하셨구

미행동일때 할 수 있는 행동도 있으니 참고하시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여자애가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정보는 있는가?)



Kaming (GM): 회복이라던가 할 수 있죠

그것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

자기들보다 먼저 받아서 간것만 본듯하니



쿠사카베 린: 저는 등장하면서 지리산 활력수를 마실게요(꿀꺽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흐음...)



호인: 변화가쪽 가게로 먼저 갈까요



Kaming (GM): 초기에 주는거 빼고는 다음부턴 유료라구욧 후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현재 시간은?)



Kaming (GM): 밤입니다.

정확한 시간으로 말하면

오후 7시 이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코코가 세실리아 옆집...이었지...)



쿠사카베 린: (코코가 오컬트쪽에 발이 넓다는 설정이 있던가...)

(헌홀이 안 열리네)



Kaming (GM): (여기에도 있다구요)



쿠사카베 린: 앓



아라쉬: 저도 등장



쿠사카베 린: 감사합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호인이 변화가로 간다면 만나가요)



쿠사카베 린: 음 확실히 이런 이야기에 머리를 들이밀었을 확률이 높은 아가씨...



호인: 변화가로 갑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미등장.



쿠사카베 린: 그럼 변화가로 (꿀꺽)



Kaming (GM): 아라쉬는 등장하시나요?



쿠사카베 린: 등장하신다고 선언은 하셨는데



호인: 네
변화가 같이 가시랑



쿠사카베 린: 저는 따라갑니다. 어느 쪽이든
만일을 대비한 사료안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(철컹)



아라쉬: 념



Kaming (GM): 그러면 판정해주시곳



아라쉬: rolling 2d6

(5 + 6)

= 11



Kaming (GM): 영력조작 마치시면 씬 들어가지요



아라쉬: 2 하나를 5로



Kaming (GM): 세실리아는 미등장 하실꺼면

" [소휴식]

- 【생명력】을【체력】+ [용도 : 소휴식] 아이템에 의한 [휴식 회복치] 의 합계치만큼 [회복] 한다.
 - [아이템] 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효과가 중복 한다.
- 일어나고 있는 [이벤트] 의 영향을 모두 무효화한다.



Kaming (GM): [아이템] 의 매매

- [아이템] 의 매매가 가능."

둘중 한가지 효과 선택하실 수 있으니
츄라이 츄라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체력 풀피고...돈도 없고...)



Kaming (GM): 그러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할게 없군...)



Kaming (GM): 씬진행하겠습니다.

=====

여러분들은 변화가A의 골목길의 사건을 처리하고 범인에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.
호인은 범인의 단서를 쫓아 변화가 B로 향하는군요?



호인: 념



Kaming (GM): 세실리아는 어떤식으로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나요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흐음..)

@같은 학교의 여학생...이란 말에 표정이 굳어지고...잠시 손가락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고민하다가
@그대로 잠시 무언가 확인을 하러 가야겠다 라고 대충 둘러대고는 헤어져서 버스를 타러 가겠군요



호인: 세실리아를 믿고 그대로 보내주겠죠



Kaming (GM): 네 결국 세실리아는 여러분에게 급하게 떨어져 어디론가 가고
여러분끼리만 변화가 B로 향합니다.

-변화가B-

변화가 A와 마찬가지로形形色색의 전광판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괴롭히는군요



호인: "허어...참으로 눈아프게 하는 빛이구나"



쿠사카베 린: "정말로 이런 곳에 범인이...?"

"뭔가 진정하기 힘드네..." @밤의 변화가는 별로 안 익숙



Kaming (GM): 이 복잡한곳에서 코스프레 가게는 어떻게 찾으려나요.



호인: "당장 알수 있는 것은 그자의 발자취가 이쪽으로 이어져있다는것 뿐이구나"

크윽...문명의 이기를 쓰고싶지만

호인은 사용할줄 모르니

두분중 한분이!!



아라쉬: "네비게이션을 써야겠네."



쿠사카베 린: 구글센세가 알려주실 거야!



호인: "??



아라쉬: 스마트폰을 꺼내서 맵을 가동합니다.

-



Kaming (GM): 아라쉬가 검색해보면 이 주변에 코스프레 가게는 한곳 뿐이군요.



쿠사카베 린: "코스프레... 가게.. 변화가B... 어라? 필터링?" @가우똥



아라쉬: "성인인증 필요하다고 나오나..."



Kaming (GM): (ㅋㅋㅋㅋ)



호인: "?????"



아라쉬: "일단 내쪽에는 나왔으니."

"이 길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."

-



Kaming (GM): 호인은 두사람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있다.



호인: "알겠다 그럼 곧장 가도록하지"



쿠사카베 린: 졸졸 따라갑니다



아라쉬: "밤에 코스프레 가게에 여학생과 아이를 데려가는 청년이라니..."



Kaming (GM): 네 그리 길을 따라 쭉 가면 조금 으스스한곳에 있네요. 역시 그런가게다 보니 구석에 있는걸지도"



아라쉬: "안좋은 그림인데..."

-



Kaming (GM): 아라쉬가 맵을 보며 걷다보면 주변의 전광판의 색이 점점 분홍색이 많아지네요



아라쉬: "...좀 서둘러서 걸을까."

-



Kaming (GM): 이름바 홍등가 비슷한 곳이려나요.

여기저기 조금 추운날씨인데도



호인: "잘 모르겠다"



Kaming (GM): 노출이 심한 여자들이라던가

얼굴이 험상궂은 정장의 덩치씨라던가



호인: @노출이 심한 여성들을 걱정스러운(...)표정으로 잠시 보다가

이내 아라쉬의 안내대로 따르겠지요



쿠사카베 린: "호인아... 혹시 나 여기 드레스 코드를 따라가지 못 하는 걸까?" @심각
(천연어필을 잊지 않는다)



호인: "흐음...난 린이 적절하게 갖춰입었다고 생각하는구나"



Kaming (GM): 천연데스네



호인: "오히려 저 처자들이 몸살이 날까 걱정이구나"



쿠사카베 린: "호인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."



호인: @쫓하고 혀를 차고는



쿠사카베 린: @납득 ㅎㅎ



아라쉬: "아- 여기는 직업상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뿐이야..."

"목적지만 바라보고 가자."

-



호인: "특이한 직업도 다있군"

@아라쉬를 쫓아가지요



Kaming (GM): 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보면
목적지에 도착하네요.

'모에모에 러브리 코스프레 점'



호인: "여기인듯 하구나"

@지체없이 들어가버립니다....



Kaming (GM): 코스프레라고 해도 카페비슷한 곳인거같네요.

더 안쪽의 서비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



쿠사카베 린: "분명 사악한 과학자의 비밀연구소니까 이런 깊은 곳에 있는 거겠지."

"이 카페 또한 위장...!" @홀로 납득



호인: (사악한ㅋㅋㅋㅋㅋ)

Kaming (GM):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서면..



조용합니다.
화려한 조명은 그대로인데.
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지않네요.



호인: "영력결계라도 펼쳐진건가"



쿠사카베 린: (!)



호인: "조심하자꾸나"



쿠사카베 린: @인형을 꺼내 품에 안습니다



호인: @호인은 특별한 냄새나 소리 기척등이 나지 않는지 온신경을 곤두세워 찾아봅니다
탐지건 모드



Kaming (GM): 기분나쁠정도의 정적



아라쉬: 좁은공간... 활이 아닌 화살만을 꺼내서 손에 쥍니다.



Kaming (GM): 하지만 좀더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.

???: "...아니야..이것도 ..이것도"



Kaming (GM): 여러분이 신경을 곤두서고있지만 기척에도 잡히지 않는 누군가가...



호인: 소리가 들리는쪽으로 다가갑니다
아무말없이 그냥
들어가웁!



쿠사카베 린: (과감!)



Kaming (GM): 소리는 주방안쪽에서 나는거 같군요.
호인이 들어가보면..



?????: "아니야...이것도.."
@앉아서 동그란 무언가를 손에서 이리저리 굴리며



Kaming (GM): 백발의 안대를 낀 남성이



호인: '안대를 찬 남성'



Kaming (GM): 앉아서 무언가를 찾는듯
손에 쥐었다가
뒤로던지고



쿠사카베 린: (패셔니스타...)



Kaming (GM): 다시 땅에서 무언가를 쥐었다가 던지고..
그러다가
그중 하나가
호인에게 굴러옵니다.
그것은...
사람의..눈 알



쿠사카베 린: (산치체크...!?)



호인: @꿈틀



쿠사카베 린: (시스템이 다른데요!)



?????: "내가..찾는건 이게 아냐.."



쿠사카베 린: "...!" @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인 비명



?????: @획



호인: 분노에 휩싸여 남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내지릅니다



?????: "...?"

@달려오는 호인에게 손을 내밅니다.
그러자 호인은 무언가에 막힌것처럼
더이상 전진하지 못하네요.



호인: "으음!!"



?????: "누구?"



호인: @뒤로 물러납니다



?????: @고개를 갸웃



호인: "우리가 누군지 알아서 뭐에 쓸테냐"



?????: "....이 불쾌한 느낌은"
"아아 신살자(카미가카리)인가"
@자리에서 일어나자
그 아래에 수많은 눈알들
"조금 어두운가?"
@손을 딱



?????: 그러자 어두웠던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.



Kaming (GM): 그리고 주방 안쪽에 쓰러져있는
수많은 사람들
모두들 눈을 잃은체..



아라쉬: 시위를 겨누고
인상을 씁니다



호인: "네 이놈!! 곱게 돌아갈것이라 생각치 마라!!!"



쿠사카베 린: (히이익)



?????: "갑자기 열혈모드중에 미안한데 여기에는 내가 찾는게 없는거같아"
@전혀 신경쓰지않는 눈치



호인: @보이지 않는 힘을 뚫으려 애쓰지만 계속 막힙니다



?????: "저기저기 너희 동물귀에 여자애 못봤어?"
"이런 가짜 말고"
@동물귀 머리띠를 들고 흔들니다.

호인: "헛소리마라!"



?????: "너도 동물귀...하지만 남자 틀려"

@절레절레

"알려주지 않는거야?"



호인: "알려줄 의무따윈 없다"

"네놈이랑 허굴릴 생각없다!!"



쿠사카베 린: (우와아앗)



?????: "흐음 그래 그럼 너희에 눈에 물어볼까?"

@손에 눈알을 굴리며



쿠사카베 린: "히, 히익!"

"이치노스케!" @계약소환 -> 인형이 커집니다



?????: "헤에 저건 또 신기한"



쿠사카베 린: (영문소비)



?????: "뭐...지금 너희에게 방해받고 싶지않으니까"



쿠사카베 린: "쌌, 쌌, 쌌, 씹!"



이치노스케: @철컹



호인: "우오오!"



?????: "우선...가만히 있어?"



호인: @계속 들이박습니다



?????: @손을 여러분에게 향하고 움켜진다.



Kaming (GM): 그러자 여러분은 몸속,몸밖 모든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!?)



호인: "우아아악!"

@털썩



?????: "너희들은 제일 마지막"

"거기서 암전히 고통스러워 하고있어줘"



쿠사카베 린: "아악!!" @무릎 꿇는다



?????: "아직...이곳에는 물어볼 눈은 많으니까"

@그 말과 함께

@백발의 남자는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.



Kaming (GM): 여러분의 몸에서 느껴지는 원인불명의 고통은 계속해서 느껴집니다.



호인: "이이이익...!!"

@고통스런 와중에도 몸을 일으킵니다



Kaming (GM): 백발의 남성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한것은 틀림없지만



아라쉬: "큭..."

 쿠사카베 린: (법칙장해타--임...)

 호인: (흠터레스팅)

 Kaming (GM): 원인부터 찾아야할꺼같습니다.

 쿠사카베 린: 감지판정이려나요?

 Kaming (GM): 네

 쿠사카베 린: 아니면 영문식별...앗 감지구나

 Kaming (GM): 법칙장해의 존재를 알아차리려면
감지

 호인: 잉 행운 1...

 쿠사카베 린: 난이도는 얼마나되나요?

 Kaming (GM): 13/16입니다.

 쿠사카베 린: 콧... 꽤 높다

 호인: 흠

 쿠사카베 린: 하지만 아마 법칙 장해에 영문을 연소시켜야할 테니

 호인: 하나라도 6이 뜬다면...

 쿠사카베 린: 일단 굴려봐야...

rolling 2d6+6

(4 + 6)+6

= 16

엄마?

 호인: 굴려볼게요

 Kaming (GM): 성공

 호인: rolling 2d6+1

(3 + 6)+1

= 10

오케이'

3과 6을 교환

13입니다

 Kaming (GM): 린은
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립니다
무언가의 저주로

 호인: 아 린이 성공했으니 안굴려도

됐구나



Kaming (GM): 여러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겁니다.



쿠사카베 린: 으아아



호인: 필요 인수가 전원이면
흠...



쿠사카베 린: 사건을 잃어버린다<<



호인: 난이도 올리고 3명에서 해볼까요



Kaming (GM): 세실리아를 호출해도 되구요
^^



쿠사카베 린: 세실리아를 호출하면 뭐가 벌어지나요 GM



Kaming (GM): 글.썩.요?



쿠사카베 린: 왜 웃는거야...



호인: 아무래도 버스타고 오는애를 붙잡기는 좀 그러니
영력주사위도 6이 두개나 있겠다
한번 질러보는것도 나쁘지 않죠



Kaming (GM): 카미가카리가 진심을 내면 차보다 빠르게 달리는...



쿠사카베 린: 저도 6을 써야겠군...



호인: 정신 3이라..



쿠사카베 린: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어째



호인: 아니 2구나
시무룩



Kaming (GM): 여러분들은 초인이라구요



쿠사카베 린: 세실리아부르면 그 사이
데미지 받을듯도 하지만
이쪽은 정신이 저빠고 다들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세실리아 부르면 세실리아가 죽겠지)



쿠사카베 린: (익ㅋㅋㅋ)



호인: 영문 연소 해야겠네



쿠사카베 린: 특수데미지가 너무 커서



Kaming (GM): 령문 조작도 있으니



쿠사카베 린: 돌파는 당연히 무리고...



호인: 세명이서 합시다



쿠사카베 린: 넵

호인: 준비오키



쿠사카베 린: 3명이서하면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GM



호인: 한명당 난이도 몇오르더라
2올라가던가



Kaming (GM): 부족한인원수X2
난이도 2증가



쿠사카베 린: 1x2군요



호인: 영문연소 확정이고
전 타케시를 불태워버리겠습니다



Kaming (GM): 일단
소거로? 도전하시나요



쿠사카베 린: 소거죠?
돌파 5d데미지는



Kaming (GM): 돌파하면 판정이 필요없고 페널티 이득 다받고
법칙장해 소멸



쿠사카베 린: 패널티 주능력치 -2도...
마스터가 우릴 죽일 생각이 뽕뽕
여기서 소거를 해도 HP를깎고
돌파를 해도 영문을 깎는다
구엑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돌파하면 특템 안받아요?)



Kaming (GM): 받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돌파하면 특템을 받는걸로



호인: 소거합시다



Kaming (GM): 아라쉬님도 소거로?



아라쉬: 네



Kaming (GM): 좋습니다.
그러면 세실리아 제외하고
3명이서
도전하는군요
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저주를 해제하기위해
힘을 씁니다.



호인: 영문연소 타케시 다이스 +2



쿠사카베 린: 음 마안의 능력으로 결계의 기점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느낌으로...



호인: 힘으로(...)



쿠사카베 린: 타케시 아마 저번에 태웠으니
사쿠야를...

+2D합니다



Kaming (GM): 슬슬 령문 야바이?



쿠사카베 린: 넵



Kaming (GM): ^^



호인: 일단 저는 먼저 굴립니다



쿠사카베 린: 네



호인: rolling 4d6+2

(6 + 5 + 6 + 2)+2

= 21

흠...



Kaming (GM): 호인은 스페셜로
영력 임의눈으로



아라쉬: 오오



쿠사카베 린: 오...



Kaming (GM): 령문 소모 2d



호인: rolling 2d6

(5 + 3)

= 8

8



Kaming (GM): 8감소
일단 호인이 저주의 힘을 억지로
밀어내기 시작합니다.
하지만 아직은 역부족!



아라쉬: 호인에 대한 감정을 소거하고 2d추가



호인: "끄으으으윽!!"



Kaming (GM): 네
난이도는 15



아라쉬: rolling 4d6+1

(5 + 3 + 1 + 4)+1

= 14



쿠사카베 린: 이치타리나이!



아라쉬: 1을 5랑 교환



Kaming (GM): 이치리 타리나이
넵
그러면 아라쉬도 성공
령문 2d소모



아라쉬: rolling 2d

2

= 2

rolling 2d6

(6 + 4)

= 10

헐



Kaming (GM): 10



아라쉬: 영문 -1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4d6+6

(3 + 1 + 3 + 1)+6

= 14

아?



아라쉬: ㄷ ㄷ



쿠사카베 린: 여기서 펌블?



Kaming (GM): wtlitQKdl

ㄴ ㄴ

1이 전부나오지 않는이상
펌블이 아닙니다.



쿠사카베 린: 다, 다행이다...

ㅠㅠ

3과 6을 바꿉니다



Kaming (GM): 넵 그러면 성공



호인: 저 위에서 5랑 2를 교환해도
성공이니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
(5 + 1)

= 6

**호인:** 저는 교환하겠습니다**쿠사카베 린:** 6소모입니다**Kaming (GM):** 스페셜후

영력조작은

불가능이라

**아라쉬:** 령문이 -1이 되어... 흑흑**Kaming (GM):** 펄 스페셜은 영력조작 불가능**호인:** 그러군요!**Kaming (GM):** 네**호인:** 넵**Kaming (GM):** 넵

호인이 억지로 저주에 구멍을 내고

다른 두명이 그 구멍을 더욱 넓히기 시작합니다.

엄청난 고통을 참으며....저주해제를 성공합니다.

**아라쉬:** "큭... 하아..."**Kaming (GM):**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고통은 서서히 사라져가는군요..**쿠사카베 린:** "이이이익...!"**Kaming (GM):** 효과 A 받으셔서

영력 1개 임의에 눈으로

**호인:** 바꿨습니당**쿠사카베 린:** 네**호인:** "하아...하아..."**쿠사카베 린:** 3을 4로**호인:** "누가 아키나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해다오"

@사람들을 살펴봅니다

전부 한곳에 모여있나요?

**Kaming (GM):**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꼼짝못하게 할만큼의 힘을 가진 백발의 남자.

평범한 인물은 아니겠죠

**쿠사카베 린:** 일단 아키에게 연락을...

위치데이터와 피해자의 어림잡은 수, + 피해상황...

**호인:** "뭐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 이세상에 태어난걸 후회하게 만드리라..."

@주먹파악

**Kaming (GM):** 그렇게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있는동안

여러분의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.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이거 조금 늦어버렸네요"



호인: "누구지?"



쿠사카베 린: (앗 당신은 연하남!)



호인: (연하남이 또...)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아..정식으로 보는건 처음이었나요. 타케노우치 쇼우라고합니다. 편하게 정보상이라고 불러주세요"

@웃음

여러분들도 정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씩 들어봤을 정도

"큰일을 당하셨네요 여러분"



호인: "이런일을 하게 되면 으레 당하는법"

"새삼스럽지도 않다"

"그래 어인일로 찾아온것이나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아아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'사신'을 쫓고있어서"



호인: "사신?"

"그 검은 녀석을 말하는건가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아라미타마..라고 하는게 더 좋으려나요"



아라쉬: "눈알을 모으는 아라미타마인가..."



쿠사카베 린: "아라미타마...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눈알을 모으기 시작한건..최근이네요"

"저 아라미타마 생각보다 거물이라.."



호인: "그 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지?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정확한건 아직..그거에 대해서 조사중이었지만"

"제가 아는것에 대해서는 뭐...본래 정보료를 받아야하지만.."

"뭐 서비스라는걸로"@웃음

"특별히 공짜로 알려드리도록 하지요"

"저와 인연이 아주 없는것도 아니니까 말이에요"



쿠사카베 린: 린은 이런 참상 앞에서도 웃고 있는 그를 조금 섬뜩하게 여깁니다



호인: "보통 그렇게 말하고 뭔가 다른것을 요구하기 마련"



쿠사카베 린: 타케노우치 쇼우 - 거리감



호인: "알겠다"

"알려주면 고맙게 받으마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하하"



아라쉬: 린과 같은 감상이기는 하지만, 그의 유용성을 느끼고 있습니다.

타케노우치 쇼우 - 유용

타케노우치 쇼우: "우선 그녀석 '데빌아이'라고 15년전 최초로 목격된 아라미타마예요"



호인: "15년전인가"



타케노우치 쇼우: 정보7 공개

"하지만 돌연 증거를 감춘뒤..최근에서야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"



호인: "불길한 요물로군"



쿠사카베 린: (우-와앗)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조사를 위해 쫓아다니고 있었죠"



호인: "위험한것이 아니더냐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뭐 일이니까요"@으쓱



호인: "보아하니 전투원은 아닌듯한데"

"제 몸보신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지만 당장 중요한것은 아니니 넣어두마"

호인은 나름대로 쇼우를 높게 평가하는듯해요

약간 의심은 하고있지만



타케노우치 쇼우: "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"

"이제부터는... 유.료 랍니다"

@웃음



호인: "더 있는지도 의문이지만"

"요구사항이라도 있는것이냐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글썩요오"



쿠사카베 린: "저, 저 녀석을 쓰러뜨릴 방법이라던가...?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게임기를 가지고간 여학생의 정보라던가?"

@웃음



호인: "....."



쿠사카베 린: (의에엑)



호인: "유도당하는 기분이군"

"네게 목적이라도 있는지 궁금하지만"

"치워두도록 하겠다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글썩요 요새 쫓아다니느냐고 경비를 많이 써버려서.."

"제 연인에게 선물할 돈이 없단말이죠"

"하하하"



호인: "사정이 있나보군"

"알겠다"

"그 아이의 안전이 우려되는것도 사실이니"

"요구사항을 먼저 듣도록하마"



아라쉬: ".....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정보료는.. 어디보자 어느정도 DC해서.."

"효과치 1정도의 소재정도면 나쁘지 않겠네요"



호인: "이거면 되겠느냐"



쿠사카베 린: (메타아)



호인: @딱딱한 나무껍질



타케노우치 쇼우: "호오 이거는 딱딱하군요"

@톡톡

"좋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겠네요"



호인: "이제 이쪽이 들을 차례로구나"



타케노우치 쇼우: @거래성립

나무껍질 지워주시고

"네 어디보자"



호인: (지웠습니당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우선 나나모리 학원에 재학중인 2학년생이군요"

"이름은...."

"카미야 쿄코"

"흐음 부모도 없고 친구도...어라"

"여러분들이 잘 알고계시는분이 이분의 친구분이시네요"



호인: "세실리아인가"



쿠사카베 린: (현직 여고생의 가정사정까지 알고 있는 정보상)

(읍읍)



아라쉬: "...세실리아인가..."

-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세실리아 슈발츠발트"



쿠사카베 린: "에" @깜짝 놀란다



호인: "아까 여학생 이야기가 나왔을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"

"그런 이유인가..."



쿠사카베 린: "제일 먼저 확인하러 간 걸지도...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여기에 그분은 없으신듯하네요"



호인: "아마 그 아이의 자택으로 향한듯하군"

"자택 위치에 대한 정보는 있느냐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자택은 세실리아씨의 바로 옆집이네요"

"분명 주택가E쪽이었죠"

(E쪽에서 찢어주지!)



호인: (ㅋㅋㅋㅋㅋㅋ)



아라쉬: "세실리아는 그쪽으로 간건가."



호인: "그런거같군"

쿠사카베 린: "그럼 어서 쫓아가죠!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뭐 이정도려나요"



쿠사카베 린: "두 사람 모두 위험에 빠질지 몰라...!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오랫만에 하사시로 시에 왔는데... 역시나 사건이 끊이지 않네요"



호인: "늘 평화로운 세상이 어디에 있겠느냐"

"그러기 위해 우리가 있는것이고"

"제공 감사한다"



타케노우치 쇼우: "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필요하신게 있다면 언제든지"

@웃음

"뭐 이곳은 곧 특대의 요원들이 어떻게 해주겠지요"

"그럼 저는 이만"



호인: "살피가거라"



타케노우치 쇼우: @그렇게 나가려다가 뒤돌아보고

"아 여러분의 상사분께는 안부 전해주세요"

"그럼 정말로 이만"

@하고 사라집니다.



호인: "그래"

"흐음..."

"아키를 말하는건가..."

"저자는 아키와 대체 무슨관계인것인가..."

"고민해도 소용은 없지"

"가보자꾸나"



호인: "아라쉬 린 설수 있겠느냐"



쿠사카베 린: "응!"



Kaming (GM): 여러분이 느끼던 고통은 이제
말끔히 사라졌네요



아라쉬: "물론."

-



호인: "서두르자꾸나 세실리아 혼자서 감당할수 있을리가 없다"

"셋이 덤벼도 그정도였으니..."

@호인과 일행은 주택가 E로 향합니다!



Kaming (GM): =====

다음 씬플레이어는

세실리아로 가보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네에



Kaming (GM): 일단

등장인물 전부 초대 불가능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동시 진행이니 뭐어...



쿠사카베 린: 파이팅 셋짱



Kaming (GM): 다만

정보원에게

정보를 들어 위치를 알았기때문에

진행중

등장판정으로 인한 등장은

가능



호인: 그럼 계속 진행하지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진행...)



Kaming (GM): =====

세실리아는

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

일행과 떨어졌습니다.

어디로 향하나요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바로 자기 집으로 향하죠.

@무턱대고 뒤져보기 보단...그게 빠를 것 같아서요.

@게임기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쳐들어올 확률이...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.



Kaming (GM): 꽤 쿄코에 대해서 잘알고있는 세실리아짱

쿄코가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향하면..

역시라고 해야하나 분명 집주인이 없는데

집에 불이켜져있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정마아알..."

"멋대로 예비열쇠 쓰지 말란 말이야...멍청이가아..."

@나직하게 굳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열쇠를 꽂고 문을 열어요.



Kaming (GM):하지만 방안에서는 세실리아가 들어왔음에도 무소식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쿄코...! 있어!?"



Kaming (GM):

정적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불은 켜있는데...

@재빠르게 현관 쪽을 둘러보고 안으로..



Kaming (GM): 안으로 들어가면..

침대에 몸의 기대로 쓰러져있는 쿄코와...그앞에는..



닌텐더: "...눈..."

쿄코에게 다가가려고합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으랴아앗!"

@그럼 그대로 옆에 있던 잡지를 집어던져요.

@맞춰서 주의를 끌어보죠



닌텐더: ".....?"

@세실리아 쪽을 바라봅니다.

"눈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누굴. 노리는. 거야."



닌텐더: "동물....귀"

"찾는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노려보면서 내뱉듯 말하고는...

@그대로 분홍빛 십자가를 꺼내 들어요.

"덤벼. 까맣게 태워줄테니까."



Kaming (GM): 그렇게 공격태세를 갖춘...세실리아의 눈앞에 갑자기 검은 연기가 몰아치더니..



?????: ".....여기야? 동물귀 여자애..는"

세실리아는 처음보는 백발의 안대

그리고 썸뚝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"



?????: "동물귀..여자애..하지만..."

"달라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네가 주동자야?"



?????: "글쎄... 너 내가 찾는거 아니야"

"....이 여자애한테 물어볼까"

@쓰러져있는 교코를 바라봅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웃기지마!"

@그럼 그대로 십자가를 휘둘러서 공격하겠군요.



?????: "가만히있어"

@하지만 세실리아에게도 엄청난 격통이

몸이 무거워집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, 크, 으으....까, 아악...?!"



?????: "혹시 소중한 사람?"

@교코와 세실리아를 번갈아 보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오면서, 부들...부르르...



?????: "그런모양이네.."

"그럼..잘 지켜봐 너의 소중한 사람.."

@날카로운 손으로..교코의 오른쪽 눈을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멈춰어어어어.....!!!!!!!"



?????: @뺨습니다. 하지만 피는 나지않아요

"좋은 반응.."

"하지만 더 즐기기엔 바빠.."

"다른건...이애들이 해줄꺼야"

@손에서 뽑은 눈알을 굴리며
"예쁜 눈이네"



?????: "거기서 절망해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으, 아아앗...!"
@그대로 억지로 공격을 다시 한번 날려봅니다.



?????: 하지만 그 공격이 닿기전에..
검은 연기가 되어
사라집니다.



Kaming (GM):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
주변의 물건들이 점점..
닌텐더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있습니다.
교코는 여전히 쓰러져있고
세실리아의 몸에 격통은 그녀석이 사라지는 동안 사라지고있지만.
계속해서 변하려는 물건들때문에 교코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변화를 멈추려면...?



호인: rolling 2d6

(4 + 2)

= 6

포맨더사용
등장판정 자동성공



Kaming (GM): 등장판정이군요
네 뭐 판정 전에 사용하는거긴하지만!
소모해주시고



쿠사카베 린: (아 저 아이템이 있었군)



호인: 아 죄송



Kaming (GM): 분명
백발녀석이
무언가 해두고 간게 틀림없습니다.



호인: @문짝을 뽐개버리고(...)
달려들어갑니다



Kaming (GM): 이대로 두면 물건들은 완벽히
변해 여러분을 공격하겠지요



호인: "괜찮으냐"
@세실리아를 가리듯이 앞에 섭니당



Kaming (GM): 육체파 호인이 엄청난 기세로 뛰어들어왔다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저거부터 어떻게 해야...!"



쿠사카베 린: (초대가 안 된 거 뿐이지 끼어드는 게 가능했었군..)



Kaming (GM): 네



쿠사카베 린: (기억해줘야지...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원인 파악을 위해 판정 해보죠.



Kaming (GM): 세션중 등장판정 가능



호인: "다른 아이들도 올것이다"



Kaming (GM): 감지려나요



호인: "그동안 그 남자가 이곳에 쳐놓은 장난질은 그쪽에게 맡기겠다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필요한게 감지라면..감지겠쥬)
(특별히 다른 판정을 요구하는게 아니라면?)



호인: @변하려는 물건들에게 다가가 곤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실리아가 감지하기 편하도록



Kaming (GM): 네

법칙장해예요

이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감지



Kaming (GM): 13/14

13/15균요

죄송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신비의 위엄 쓸 경우 15로 성공되나요



쿠사카베 린: (오오..)



Kaming (GM): 텔런트로 자동성공한경우는 어디보자

딱히 써져있는건 없지만

20달성치가 되겠군요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습니다



쿠사카베 린: oh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5 소모, 2를 5로 변경.



Kaming (GM): 은밀도 텔런트로 사용하면 대부분 20으로 취급하니

넵



호인: @세실리아가 열심히 찾고있는동안 이쪽으로 다가오려는 놈들을 날려버립니다



Kaming (GM): 법칙장해 공개



호인: 민첩인가아아



Kaming (GM): 주변에 물건이 변하기 시작한건



쿠사카베 린: (민첩이라니)

Kaming (GM): 백발녀석이 물건들에게 무슨짓을 했기때문

저들이 완벽히 변하기전에



쿠사카베 린: 3명인가...



Kaming (GM): 주술을 해제하면
될꺼같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이딴...주술 따위...!"
(다른 분들은? 안오나요?)



쿠사카베 린: 민첩에 우수한 아라쉬와 영문에 여유가 있는 셋짱이 해줄 거야...!



Kaming (GM): 일단
등장해있는 사람은
2사람뿐



아라쉬: 등장합니다



쿠사카베 린: 아라쉬가 피료한 순간



호인: 일단 저 먼저 판정해도 될까요?



Kaming (GM): 더 등장하실 분은 계시면 등장판정하시면 됩니다.
아라쉬 등장판정
행운 8
아이템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구요



호인: 아라쉬 먼저!



아라쉬: rolling 4+2d6

4+(2 + 4)

= 10



Kaming (GM): 등장
해주세요!
린은?



쿠사카베 린: 음 저는 여기 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.....



아라쉬: "늦어져서 미안! 이 시간대에 차가 막혀서!"
"세실리아는!?"

-



쿠사카베 린: 아까의 참상 때문에 놀라서, 처리하러온 특대 요원들에게 토닥토닥 받고 있습니다



Kaming (GM): 성공시 영문회복도있어서



호인: @변하는 물건들을 쳐내는중



쿠사카베 린: 앓



호인: "무사하다!!"

쿠사카베 린: 영문회복이 있잖아!



호인: @퍼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이딴, 주술 따위....!"



쿠사카베 린: 앓 바카쟈나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안에서 세실리아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겠네요.



Kaming (GM): 꾸물꾸물꾸물꾸물



쿠사카베 린: 바카가 아니니까요
등장!



Kaming (GM): 점점 축수(?)와 눈알들이
물건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!



쿠사카베 린: 펴블이 아니라면 등장성공이라고!



Kaming (GM): 서두르지않으면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6

(4 + 2)+6

= 12



Kaming (GM): 네 등장



호인: 먼저 굴리고 묘사하겠습니다



Kaming (GM): 일단



호인: rolling 2d6+7

(1 + 4)+7

= 12



Kaming (GM): 소거인가요?



호인: 아 죄송;;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소거쵸



호인: 저는 소거로 가려고 하는데;



쿠사카베 린: 소거입니다
소거소거



Kaming (GM): 좋습니다.
소거로 판정해주시죠
목표성공인원은 3인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이게임 돌파해서 얻는 이득이 0수준이라서..)



호인: 이미 던진거 다시 던지는 양아치짓은 하지 않는다

 쿠사카베 린: 호인은 영력조작?

 호인: 1을 6과 교환!

 쿠사카베 린: 돌파 데미지 받고...

 Kaming (GM): 넵

 쿠사카베 린: 패널티받고...
좋을 게 없엉...

 호인: @촉수와 눈이 돌아나는 물건들을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소거실패랑 영문5 차이남ㅋㅋ 의미없)

 Kaming (GM): A효과도 받고

 호인: 일일이 박살내놓습니다
"서두르거라!"

 Kaming (GM): 소거는 실패하면 페널티만 받아서

 아라쉬: "아아...!"

 Kaming (GM): 할꺼면 확실히 해야하죠

 아라쉬: rolling 6+2d6

6+(4 + 4)

= 14

 쿠사카베 린: 달려요 아라쉬!
오오

 아라쉬: 저스트 성공이군요.

 Kaming (GM): 주술의 힘이
깨지려고합니다.

 쿠사카베 린: 아 저까지 굴려야 클리어?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영문연소...아라쉬...

 아라쉬: 그럼, 호인의 오른쪽으로 화살이 날아오더니

 Kaming (GM): 아직 1개
남았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1개...

 쿠사카베 린: 아 세실이 성공한 게
감지판정이었죠 참

 아라쉬: 닌텐더들에 맞을때마다 도탄되면서

 Kaming (GM): ㄴ[○
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3d6+3

(5 + 3 + 2)+3

= 13



아라쉬: 여러 대상을 휘집어놓네요



쿠사카베 린: 이치타리나이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3을 5로 변경



Kaming (GM): 싯빠이

는

성공

령문 1d 감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6

(2)

= 2



Kaming (GM): ㅇㅎ

2감소

그러면 마지막 해제 묘사와함께

법칙장해 소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내가, 이딴 주술 따위에 막혀있을 거 같아?!"

@그대로 공중에 십자가를 영력으로 띄운 채 거대화 해서

@주술의 핵위에 떨어요

"알보지 말라고오오오.....!"



Kaming (GM): 쿵..!

주술의 핵은 금이 찢적..가면서

이내 깨져버립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격양된 목소리로 영력을 핵에 쏟아붓고...



Kaming (GM): 그러자 주변에 변하던 물건들이

격하게 꿈틀거리며..

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..



호인: 물건 작살내는걸(...)멈추고

황급히 세실리아에게 다가갑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하아, 하아....쿄코, 쿄코...!"



호인: "괜찮으냐"



Kaming (GM): 세실리아가 쿄코에게 다가가면...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대충 괜찮다는 손짓과 함께 쿄코에게 뛰어가서 상태를...



Kaming (GM): 오른쪽눈이....빼앗겨버렸습니다.



카미야 쿄코: ".....세실..리아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....아아....."



호인: "...."



카미야 쿄코: @힘겹게..다른 한쪽눈을 뜨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대로 주저앉아서 쿄코의 이마를 쓰다듬어줘요



카미야 쿄코: "헤헤...뭔가 몸이..나른하네"
"그런데 여기 어디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프, 아프지...아, 어떻게 해야..."



카미야 쿄코: "어두워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중얼 중얼....



카미야 쿄코: "...우리..호텔에 왔었나..?헤헤"



쿠사카베 린: (흐냥...ㅠ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냐, 바보야..."



아라쉬: "세실리아."



쿠사카베 린: 일단 아키에게 연락 넣을게요



카미야 쿄코: "호텔이..보여.."



호인: '호텔...?'



쿠사카베 린: 현재 위치로 빨리 와달라고...



카미야 쿄코: "헤헤 세실리아..랑 호텔..아직..일..ㄹ"



아라쉬: 반쯤 패닉상태인 세실리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름을 불러줍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앗 눈깔 가져간 곳과 연결되었어..!)



카미야 쿄코: @알수없는 말을 하고 다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으, 으으.....흐우우...."



호인: "..."



카미야 쿄코: 정보6 공개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, 그대로 쿄코의 얼굴 위에 몸을 숙여서 오열하기 시작하네요.



호인: 오열하는 세실리아를 측은하게 바라보다가
이내 바깥으로 나갑니다



아라쉬: "사건이 해결되면,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거다"
그렇게 말해주면서 손을 꼭 잡니다.

-



Kaming (GM): 최악의 상황은 간신히 막았지만...
 아직 그녀석은 하사시로 시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
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..
 여러분들 령문 5 회복해주시고
 일단
 세실리아 씬아웃? 아니면 더 하실게..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션아웃 하죠.



Kaming (GM): =====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

(4)

= 4



Kaming (GM): 영력 회복해주시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2를 내놔라 스트레이트다)



Kaming (GM): 점점 최종장에 다가가고있습니다.
 전원등장으로 마지막 씬 들어가볼까요



쿠사카베 린: 옛 다음이 최종장이 아니었던 거신가...



Kaming (GM): =====



호인: 갑시다



Kaming (GM): 여러분들은 료코가 보았다던 호텔...
 그랜드호텔에 도착했습니다.
 료코가 보았던건 분명 백발의 아라미타마가 가지고간 그녀의 눈에서 본것.
 이곳에 있을것이 분명합니다.



호인: @바로 호텔로 진입합니다
 "준비는 됐느냐"
 "놈이 있을수도 있으니 주의하거라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 자식..."
 @눈이 차갑게 빛나는군요.



호인: "...그 아이가 무엇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보자꾸나"



Kaming (GM): 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..
 사람들이 잔뜩 쓰러져있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히익)



Kaming (GM): 그중에는 특대요원의 옷을 입은 사람도 있군요

정보원A: "크읍..."



쿠사카베 린: (지난번에 만난 거 같은 정보원A씨!)



아라쉬: "특대의 그...!?"

-



호인: @정보원에게 달려갑니다

정보원A: "ㅇ..이목소리는..여러분 이군요"

@하지만 정보원의 눈은 보이지않습니다.

"당해..버렸습니다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 악마는 어딴어."

정보원A: "그녀석..닥치는데로 이곳의 사람들의 눈을..빼앗으며 옥..상으로"



아라쉬: "옥상인가...!"

정보원A: "조심..하십시오"

"그녀석....강..."

@털썩



호인: "알겠다 힘써줘서 고맙다 곧 사람을 부를테니 염려말거라..."

@쓰러진 정보원을 잠시 바라보다가

"이제 길은 정해진거같구나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어느새 앞장서서 계단으로 향합니다.



Kaming (GM): 분노의 세실리아



호인: "혼자 나서지말거라!"

"아라쉬 린!"

@둘을 급하게 부르며 세실리아를 뒤쫓아갑니다



쿠사카베 린: "좋았어, 이치노스케!" @계약소환

"가자!"

(영문소비완료)

@따라갑니다



Kaming (GM): =====

-그랜드 호텔 옥상-

여러분이 옥상에 올라가면

이번 사건의 주범

'데빌아이'라 불리는 아라미타마가

멍하니 하사시로 시 를 내려다보고있습니다.



?????: "아무리 찾아도 보이지않아.."

"역시 남은건.."

@스욱 뒤돌아 여러분을 바라봅니다.

"너희려나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쿄코의 눈, 돌려줘."



?????: "쿄코...? 아 그 예쁜 눈"



호인: @세실리아의 뒤에서 튀어나오듯이 나옵니다



?????: "글썸..이걸까? 아니면 이걸까..?"
 갑자기..유리통을 꺼내며
 그안에는...무사히 많은..
 눈알들이



호인: "잔악한놈 저급한 취향을...!!"



쿠사카베 린: ?????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획득



호인: ?????에게 분노 감정 획득



아라쉬: 데빌아이에게 모멸의 감정을 획득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데빌 아이 - 살해



?????: "예쁘지않아?"
 "내 컬렉션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"
 @시무룩
 "걱정마..너희들도 여기에 추가해줄게"
 "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야"



호인: "수집품을 모을거면 적당한걸로 고르지 그랬느냐"
 @으르렁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너만은...너만은...절대로...."



이치노스케: @총구를 겨눈다



쿠사카베 린: ".....!" @굳은의지를, 이곳에!



호인: "사지를 으깨주마!!"



?????: "흐응..대단한 살의네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화형 시켜 버릴거야..."



?????: "뭐 가만히 있어줄꺼같진 않고.."
 "억지로..빠면 아파?"
 @걱정하듯
 여러분을 바라봅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피식, 살의를 담은 미소를 띄우겠네요.



호인: @그냥 대놓고 나 너한테 화남 이라는 표정



?????: "뭐 좋아 슬슬 그냥 뽑는거에는 질리던 참이니까"
 "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으며 하는것도..나쁘지 않겠지"
 "자아 들려줘? 너희들의 비명을.."
 @그러자
 여러분과
 아라미타마 사이에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..



깊은 심연의 나락: "끼요오오오오옥!"



?????: "내 애완동물..멋진 눈들을 가지고있어"



쿠사카베 린: "흥! 조금도 멋있지 않다고!"



?????: "자아 시작해볼까?"



호인: "바라던바다...!!"



쿠사카베 린: "다른 사람 눈을 품평하기 전에 자기 썩은 동태눈이나 관리하시지!"



Kaming (GM): 전투 페이즈!

검은칠되있는 타일로는 이동 불가

떨어지거든요 ^^

비행타입이라면

이동가능



호인: 옥상이니...



Kaming (GM): 자 그러면 전투개시입니다.

저 둘에 대해 식별가능



아라쉬: 나락쪽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데빌 아이.



Kaming (GM): 난이도는 15

나락난이도는 〇〇



아라쉬: rolling 2d6+2

(3 + 1)+2

= 6



Kaming (GM): 아라미타마는



아라쉬: 전혀 부족해

-



Kaming (GM): 16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지성..



호인: 저는 영력교환할겸

나락쪽에다가 식별하겠습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+8

(4 + 4)+8

= 16



호인: rolling 2d6+3

(2 + 6)+3

= 11

응 실패

1과 6을 교환



쿠사카베 린: 나락 식별시도합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덤벼라 16.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7

(2 + 4)+7

= 13



Kaming (GM): 세실리아는
데빌아이라 불리는



쿠사카베 린: 음 나락 실패인 모양이고..



Kaming (GM): 아라미타마의 신명을 발견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아 나락은 난이도 비밀이군요



Kaming (GM): 저녀석의 이름은
나락 난이도 15



쿠사카베 린: 2를 5로 바꿔서 성공으로 합니다



Kaming (GM): 넵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 브로냥이 정말 잘 잡았을 것 같은 약점이다..)
(내 브로냥짱...흑흑)



쿠사카베 린: 우와 징그러운 능력뿐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자아



Kaming (GM): 턴오더에 다 나오시는지?
다시 추가해야하나



쿠사카베 린: 저 만나와있네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매번 해야함)



Kaming (GM): 행동력들이?
어떻게 되시정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11
(알아서 치라고 하면됨)



Kaming (GM): ㅇ ㅎ



호인: 12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본인이 입력 가능해요)



호인: (그러함



Kaming (GM): 입력해주세요

다들 영력 알고 계신가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네비로스.....호오, 좋은 이름인걸."



호인: 호인 토큰에 써놔습니다



Kaming (GM): 토큰에 써주세요



호인: "저 벌레놈은 내가 붙들어 놓으마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영문 영력 다 토큰에 적어둠)



쿠사카베 린: 적어줬습니다



Kaming (GM): 천자리 숫자 넘어가면

어짜피 게이지 안보이는듯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그리구...이거 배틀맵에 있던거 복사해왔던데...)



Kaming (GM): 그러하다



호인: 앞자리에만 넣으면 게이지조차 안보입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배틀맵이 아니라 기본맵에서 복사해와야...)



Kaming (GM): 그런가..!

자 그럼 본격적으로

시작

=====

1R

[개시]



쿠사카베 린: 없습니다



깊은 심연의 나락: "끼요오오오..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없음



아라쉬: 기세소실

은신합니다

1을 사용하여



깊은 심연의 나락: 수많은 눈이

린에게 향합니다.

《달콤한 유혹》:개시/전투지대/1체

대상은 매 타이밍[개시]마다 자신에게 3매스씩 다가온다. 근접상태가 되면 해제



호인: 6 6 소모 = 수마변신

5 소모 = 결정장착



쿠사카베 린: (엑)

"뭐, 뭐야!?"



깊은 심연의 나락: 린은 어째선지..몸이 그 눈을 따라가게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히이이익!"

"누, 눈이 아무리 많아도 무섭지 않거든!"

"눈깔 승부라면 지지 않아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어둠에 빠져라..신살자"



호인: "뿔이!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《사신의 응시》:개시/10매스/범위/저항불가능
대상은 [상태변화: 암흑]이 된다.



호인: "이놈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대상 호인



쿠사카베 린: (엄마야아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세실리아 호인 암흑



호인.: "크흑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호인과 세실리아는
시야를 빼앗깁니다.



호인.: "갈잡은 수를 쓰는구나!!!"
(어디보자 반감이면 이동거리는 6인가아아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귀찮게에...!"



Kaming (GM): 그러면
네비로스의 턴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우선 한명씩 한명씩 고통을 알려주도록 할까"
간이이동

공격

린

《환흑의 마안》:마법공격/10매스/1체/반감

1턴 중 1회, 대상에게 [속성: 환각], 4d+18의 대미지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상태변화:[고통] 을 받고있다면 +10데미지



쿠사카베 린: (무엇이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rolling 2d6+9

(2 + 2)+9

= 13



쿠사카베 린: 나, 나의 저항은 6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주사위는 호구다



호인.: 보스의 다이스 상태가



쿠사카베 린: 저항판정합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6

(4 + 6)+6

= 16

후우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저항 성공

rolling 4d6+18

(2 + 6 + 4 + 1)+18

= 31

31데미

데미지감소 적용후

반감



쿠사카베 린: 결계1이니까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린은



쿠사카베 린: 15네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비로스의 시선을 느낍니다..



쿠사카베 린: "웃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이후 몸에 알수없는 한기와 고통
린이 느낄수 있는 고통이라면
모든것이...



쿠사카베 린: "으...으아아아아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린을 고통받게합니다.



호인.: "린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결계몇이죠?



쿠사카베 린: 1입니당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31데미

반감

16데미

받아주세요



Kaming (GM): 하지만 린의 굳은 의지로

쿠사카베 린: bb

ㅍㅍㅍ



Kaming (GM): 고통을 저항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옛
(31-1을 반감이니까 15아니예요?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좀더.. 고통스러워해도 좋을텐데.."

@아쉬운표정

아아 32템으로 봤네요 제가

초기댐을

15데미지



쿠사카베 린: (그래도 아프다)

"콧... 이까짓쯤!"



Kaming (GM): 다음 나라쿠



깊은 심연의 나락: "끼요오오오오!"

꿈틀거리며 거구를

린에게 돌진



호인.: (잠깐만)

(ㅍㅍㅍ)

(안된다 이눔아ㅍㅍㅍ)



깊은 심연의 나락: 린에게 몸통박치기

[무기공격]:육탄공격/근접상태/1체대상에게 [형상: 추], 4d+13의 물리 대미지.

명중치 15

달려온 기세 그대로 린을 박아버리려고 해요!



쿠사카베 린: 악 위력흡인 위력흡인이...

안 돼!

허;///회피 ㅍㅍ

rolling 2d6+2

(1 + 3)+2

= 6

항. 실패...



깊은 심연의 나락: 넵



호인.: 린ㅍㅍㅍ



깊은 심연의 나락: rolling 4d6+13

(6 + 1 + 2 + 6)+13

= 28

28데미지



호인.: (내가 결정장착만 안했어도!)



쿠사카베 린: 엄마야아아
피꼬닥합니다



깊은 심연의 나락: 네 린은 [기절]
그대로 린은 피하지 못하고.
거구에게 부딪혀 나가떨어집니다.



호인.: "크으...이노오옴!!"



깊은 심연의 나락: "끼요오오오!"



쿠사카베 린: 일단 제 차례오면 부활하는걸로..



깊은 심연의 나락: 아라쉬턴



아라쉬: 간이이동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집요하게 노리네...흐응...좋아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헤..생각보다 나약하네"
"좀더 비명을 질러줬으면 했는데"



아라쉬: 준비 없고
메인에 영웅혼의 일격
특수로 양식
대상은 나락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깊은 심연의 나락: 14회피



아라쉬: rolling 2d6+8

(2 + 5)+8

= 15

성공

극의+기습으로 +25



깊은 심연의 나락: 넵
데미지결정!



아라쉬: rolling 2d6*2+36

(5 + 1)*2+36

= 48

46



호인.: 키야 초전박살



아라쉬: "한호흡에 한방..."



깊은 심연의 나락: 네 장갑은 3



아라쉬: "받아라!"



깊은 심연의 나락: 43덴

"끼요오오오옥!"

@큰데미지를 입고 주춤합니다.



Kaming (GM): 다음 이치노스케
린



쿠사카베 린: 와타쿠시노오오 타안
마다 와타쿠시노 텀이다!
생명연소!



호인.: (아 토큰을 딜리트해버렸네)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
(1 + 6)

= 7



Kaming (GM): 령문 7감소



쿠사카베 린: 영문소비하고 부활



Kaming (GM): 뉘
묘사와 함께



쿠사카베 린: 묘사는



Kaming (GM): 일어나서 적들을 물리치시죠!



쿠사카베 린: 쓰러진 린은
끈기와 근성으로(...)
일어났습니다
"너 같은 나쁜 놈을 놔두고..."
"쓰러질 거 같아!"
일단 한칸 뒤로 간이이동



쿠사카베 린: 근접상태는 선언되지 않았...쥬?



Kaming (GM): 피는 [체력]만큼 회복해주시고
근접상태라고 보시면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음 그럼 이동없음



Kaming (GM): 이탈하셔두 좋구요



쿠사카베 린: [준비] 비전의 선언
3을 소모합니다
데미지산출시 랭크+1

Kaming (GM): 다레니?

-  쿠사카베 린: 아 사용자용..
-  Kaming (GM): ㅇㅎ
-  쿠사카베 린: 주어를 빼먹었군요
-  Kaming (GM): 네네
-  쿠사카베 린: 그리고 공격타이밍으로 미혹의 사시를 씁니다
6 6의 같은 눈
-  Kaming (GM): 죽일생각이야..!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이탈...? 인게이지...? 그런거 그냥 뱀을 죽이면 자동으로 풀리잖아..?)
-  Kaming (GM): (그러하달ㄴ)
-  쿠사카베 린: 그럼 일단 행사판정부터
-  Kaming (GM): 네
-  쿠사카베 린: 아 발동
-  Kaming (GM): 저항은 14
-  쿠사카베 린:
-
-
- 아?
-  Kaming (GM): 싯빠이
-  쿠사카베 린: 아?
- 아....?
-  Kaming (GM): 싯.빠.이
-  쿠사카베 린: 이, 이럴리 없어
구와아아아악
기대치였잖아!
기대치였잖아!
-  깊은 심연의 나락: "끼요오오웅옥!!"
린이 반격을 하려는순간
-  쿠사카베 린: "나, 나의 눈에서 빔을!"
-  깊은 심연의 나락: 나락의 외침이 린을 경직시킵니다.
-  쿠사카베 린: "콧...!"
(죽인다 뱀장어...)
(양념구이다...)
-  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일어났어? 근성있네"

@칭찬



Kaming (GM): 다음

이찌니산시노스케



쿠사카베 린: 그러고보니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렸던가
를 재확인으로 이치노스케의 파워가 다운되었습니당

암튼 그런걸로

이동없이

나락에게 <정밀사격>

명중고정치는 16입니다



Kaming (GM): 넵

rolling 2d6+7

(3 + 2)+7

= 12

명중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산출

rolling 3d6+17

(2 + 4 + 4)+17

= 27



Kaming (GM): 장갑 3



호인.: 아으 아깝다!



Kaming (GM): 사..살았다



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가 눈깔뱀의 눈에
정확히 한 발씩 탄을 쏘습니당



이치노스케: @탕 @탕 @탕



깊은 심연의 나락: "끼..끼요오오옥!!!!!"

@눈알이 터져갑니다.

호짱

턴



호인.: 준비

아이템 금지옥엽의 빼기 사용

체력 +1

접근해서 그냥 평타

어차피 지금

특치면



호인.: 억하고 죽는애라..

**Kaming (GM):** 네

명중 룰

(아참)

**호인.:** rolling 2d6+9-2

(4 + 3)+9-2

= 14

**Kaming (GM):** (그리고 룰조언받았는데 전투동안 지속이아니라)

(그 타이밍만 이라더군요)

**호인.:** (알겠습니다)**Kaming (GM):** 회피치 14

능동측

승

데미지!

는 안보여줘도

죽을테니

**Kaming (GM):** 묘사**호인.:** 쏜살같이 달려나가 너털너털하게 된 놈의 몸뚱이에 주먹을 꽂아넣습니다 둘이 걸레짝으로 만들어놓은 나락의 몸은 모래성마냥 무너질거예요**쿠사카베 린:** (좋은 뱀장어였습니다)**깊은 심연의 나락:** "끼..요오오옥..!"

@털썩

**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** "흐음..

"꽤 마음에 들었던 녀석인데.."

다음

세실짱

**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** @간이이동

@고워치유 린

rolling 2d6+8-2

(2 + 3)+8-2

= 11

rolling 2d6*3+14

(3 + 5)*3+14

= 38

29 heal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회복해주시구..



쿠사카베 린: 린의 HP가 30이 되었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갈잡은 어둠 따위로..."

@그대로 십자가를 신경질적으로 휘두르면,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붉은 오라가 린을 치유해줘요.
"날 막을 순 없을걸."



쿠사카베 린: "고마워 셋짱!" @방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종료타이밍
모두 영력회복



호인.: rolling 3d6

(3 + 5 + 4)

= 12

흠터레스팅



아라쉬: rolling 3d6

(3 + 1 + 3)

= 7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6

(4)

= 4

@아 그리고 린 영력 임의로 +-1...



쿠사카베 린: 아 넵

rolling 3d6

(5 + 3 + 3)

= 11

흐악 영력 숫가 안 좋아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까 린 남아있던 영력만
회복받았을때니까요



쿠사카베 린: 아 남아있던 2만 수정하는 거예요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회복직후에



호인.: (공격 소비했으니 아묵은 사라지는건가요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효과니까요 저건



쿠사카베 린: 2를 3으로 하겠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공격타이밍을

아예 암흑 제거에

써야해요



쿠사카베 린: 3부ㅏ...



호인.: 그런거군여 알겠어웃



쿠사카베 린: 3 부자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좋습니다

-

2R

[개시]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없음



호인.: 읍습니다



아라쉬: 기세소실

1을 사용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나의 신명 [네비로스]의 힘...지금 보여줄게."

왕관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.



호인.: "오너라 두려워 할것같으냐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《지옥의 감시자》:개시/사용자/사용자

이번 턴동안 자신의 행동력을 1로 변경한다.이 행동치 변화에는 탠런트나 아이템,추가효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

이후 자신의 턴이 돌아왔을때 상태변화[차폐]가 아닌 대상들 전부에게 상태변화[고통]을 부여하고 대상이 장비하고있는 장비의 -행동력을 2배로 하며 [고통]상태이사이 해제될 동안 지속된다. 1전투에 2번 사용가능하다. 이 탠런트는 타이밍을 소모하지 않는다.



쿠사카베 린: 엄마야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리고

《사신의 응시》:개시/10매스/범위/저항불가능

대상은 [상태변화: 암흑]이 된다.



쿠사카베 린: 으게에에엑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린



쿠사카베 린: 너무해애애애~!

"아, 앞이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조심하는게..좋아"

@왕관이 눈이 점점 빛납니다.

아라쉬의 턴



아라쉬: 이건...차폐를

우선으로 해야겠네요
준비에서
3,4 를 이용해서
그림자 부수기로
8칸 이동



아라쉬: 차페는 따로 선언 필요한가요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특수타이밍 소모해서
차페 선언하시면됩니다.



아라쉬: 특수를 소모해서
차페를
선언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호인.: 몸뚱아리로 가려주는건 못하나요ㅠㅠ



아라쉬: 공격만
해놔야겠다



호인.: 내가 장애물이다!



아라쉬: 아
공격하면
차페 사라지나요?
사선이 안통하나?
-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뇨
차페일때 공격해도 무방



아라쉬: 네 그럼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은밀만 풀리쥬



아라쉬: 특기 사용 없이
깡공격 할게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아라쉬: rolling 2d6+9

(1 + 6)+9

= 16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rolling 2d6+8

(1 + 1)+8

= 10

펄블이네



아라쉬: 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성공



아라쉬: rolling 2d6+19

(6 + 6)+19

= 31

크으 랭크가

없어서

25템

-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장갑은 5

20템



아라쉬: "휴우. 너희들도 어서 엄폐물에 숨으라고."

-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...."

@집중

눈을 감고있습니다.

다음 린



쿠사카베 린: 어디보자 이동거리가 반토막이쥬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

쿠사카베 린: ..결국 전력이동밖에 없네요

9칸 이동이니까...

여기로 숨겠습니다

린의 턴은 엔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차폐하시쥬?



쿠사카베 린: 넵 차폐합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다음

리치노스케



쿠사카베 린: 인형은 음... 차폐시킬까 말까

남아도는게 체력인 고깃덩어리인데

어차피 공격도 안 닿고 이동하는게

아 그러고보니

전력이동 직선만 가능해쥬

했쥬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

쿠사카베 린: 웃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렇죠
호인이 방해라
못이동하네 지금보니
다메데시타



쿠사카베 린: 꺾,,,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딜레이 하고 호인 간담에 ㄱㄱ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런데
호인이 비켜도
그쪽에는..
어이 거기는 지옥이라구?



쿠사카베 린: 고양이 이거 노답이잖아?



호인.: 몸뚱아리로
가려줄수 있으려나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다메다



호인.: 호인을 사용해서 차폐해!
ㅍㅍㅍ



쿠사카베 린: 이렇게 되면 그냥 공격이다 나쁜놈아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위기의 린이다



쿠사카베 린: 앞으로 간이이동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용기의 린



쿠사카베 린: 3을 사용해서 비전의 신언(자신의 대미지+1랭크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쿠사카베 린: 33을 사용해서 미혹의 사시(랭크3환각속성10메스공격)
발동판정!

rolling 2d6+7

(5 + 5)+7

= 17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저항합니다

rolling 2d6+7

(3 + 1)+7

= 11

싯빠이

데미지



쿠사카베 린: 콧

개념파괴!

2d영문을 소비해 데미지에 +1d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ㅎㅎ

네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*4+11

(1 + 6) * 4 + 11

= 39

rolling 1d6

(1)

= 1

콧...

24+11+1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6x5



아라쉬: 가짜 영문이었어..



호인.: 하하...



쿠사카베 린: 아 저거 4 포함한 거예요

3+1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항

네



쿠사카베 린: 36입니다

그럭저럭...ㅠ

영문소비

rolling 2d6

(1 + 2)

= 3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러면

저항 5

31덴

"....."



쿠사카베 린: "눈에서 비이이이이임!!"

@투광



Kaming (GM): 하지만..

네비로스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.

다음

이치노스케



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...

통상이동

제 앞으로

이렇게 하면 다음 턴 데미지를 애가 맞고 뒤흔들테니(음음)

호인은 피하셔도 될듯...?

이치노스케의 턴은 종료입니다



Kaming (GM): 넵

다음 호짱

앗 턴을 두번넘겼어

ㅋ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한바퀴 돌리면...된다...)



호인.: 차폐해야하나

고통 정면에서 받아내는것도 장면 괜찮을거같은데

물론 게임적으로 보면

완전 삽질



Kaming (GM): 사실 고통이 문제가 아니야..

그 뒤가 더 큰일이지 |



쿠사카베 린: 고통먹인 대상에게

추가데미던가요



Kaming (GM): 장비 -행동력 두배



쿠사카베 린: 아 그것도 있었지



호인.: 전투이동 하고

영력모으기

4->5

곳

차폐음



Kaming (GM): 넵

암흑이시라

전투이동 4칸이실텐데?



호인.: 아항

행동만큼 가는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전력까지 써야 음음)



Kaming (GM): 다만 그쪽에 장애물은 낫니모..



호인.: 전력은 일직선으로만 달려나가는거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그야 발상의 전환으로)
(전투로 앞으로 가서 전력으로 옆으로 가면되는)



Kaming (GM): (...!)



호인.: 그런게 가능한지?



Kaming (GM): (전투는 준비행동)



호인.: 룰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구만



Kaming (GM): (전력은 공격타이밍)



쿠사카베 린: 이동행위는 1턴에 1회로
서머리에 써있네요



호인.: 그러함

근데 호인은 수마질주가 있어서
전력이동 패널티 무시
아 전투이동
자체에 패널티로군
찰싹



Kaming (GM): 그러함



호인.: 그렇군

남자는 도망치지 않는다
이동하고 영력모으기



Kaming (GM): 넵



호인.: 공격써서 앎흑을
지우겠습니다



Kaming (GM): 좋습니다.
호인의 시야가 돌아옵니다.



호인.: "와라 난 도망치지 않는다!!"
(사실 못도망친거라고 한다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....."
세실리아짱
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흠.
@요기서 차페 가능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전력이동
@차페
@끝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드디어 네비로스의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갈잡은 재주를..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빛이..점점 빛나다가..
갑자기 뚝..



쿠사카베 린: 흐앗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리고



쿠사카베 린: 다멧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주변의 시야가 어둡게 물듭니다.
"지옥을 보여주지.."
그리고 숨지못한 여러분의 시야를 가져갑니다.
그리고 그곳에 보이는건 영겁의 고통
여태껏 느껴보지못한 고통이 두 사람을
덮칩니다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호인 린 고통



쿠사카베 린: "끄으으윽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장비 행동력 -2배



쿠사카베 린: (어라 인형은 고통없음..?)



호인.: "으으으오오오!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인형도 고통이군



쿠사카베 린: 저랑 같은 행동력쓰니까
함께 감소해둘게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호인은 행동치 0으로 인한 부동상태



호인.: 여기서 두배하면 행동치가 5라고 써져있는데



쿠사카베 린: 저 아이콘이어꾼



호인.: 합산치를 보는건가 으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러하다



호인.: 어라 무게 2배해도 행동치가 3이네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ㅇㅎ



호인.: 지금 장비무게 2배하면 -14인데
행동치는 17입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스고이데수우
좋습니다.
3으로 변경
"그러면..시작해볼까"

@눈을 뜹니다.

"하하..하하하하! 고통을 느껴라..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《포악한 신성》

타이밍:상시 거리:사용자

대상:사용자 코스트:없음

개요:분노를 끓어오르게 하는 것으로 감춰진 신성을 발산해 맹위를 떨친다.

효과:상시효과. 대상은 남은 【생명력】이 200이하가 된 시점에서, [능동판정]의 달성치에 +1, [행동자]가 될 때마다 [타이밍: 공격]을 +1회 얻는다.'



호인.: "으으으으...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《가공할 영위》

타이밍:상시 거리:사용자

대상:사용자 코스트:없음

개요:일정이상 부상당한 시점에서, 육체 그 자체가 개념의 구현화를 발생시켜, 전투력을 크게 상승시킵니다.

효과:상시효과. 대상은 남은 【생명력】이 200이하가 된 시점에서 [능동판정]의 달성치에 +1, [대미지 산출]시에 +2d의 수정을 더한다.



쿠사카베 린: (우에에에엑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전투이동

후

[무기공격]:육탄공격/근접상태/범위 대상에게 [형상: 검], 4d+20의 물리 대미지.

이치노스케



쿠사카베 린: (우왓?)

회피고정치17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명중 고정치 18+2

20



쿠사카베 린: (쿿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rolling 6d+20

6

= 6



쿠사카베 린: (정정당당하게 주사위를 굴려라!)

6데미지!

(읍읍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rolling 6d6+20

(1 + 1 + 6 + 5 + 3 + 6)+20

= 42

42epa

데미



쿠사카베 린: 장갑6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하하하하!!"



쿠사카베 린: 저스트킬이었기 때문에 6남았네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손톱이 길어지더니



쿠사카베 린: 너덜너덜해졌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이치노스케와 함께
린까지
굶어버립니다.



호인.: 린까지????



이치노스케: 에[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범위



호인.: 이거 방호 가능한가요



이치노스케: 아 범위였어요!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아



호인.: 아 범위면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범위라 다메다



호인.: 방호못해
하 진짜



이치노스케: 범위면 이치노스케 커버선언했는데
제대로 안 봐버렸네요



쿠사카베 린: 이렇게 되면 저도 42데미지니까..
아 저도 회피판정굴리는거죠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

쿠사카베 린: 영문연소다
네비로스에 대한 감정을 연소
달성치 20이었으니까..
3d추가합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흠 차라리 생명연소가 더 싸게 먹힐꺼같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씻잔)



쿠사카베 린: 1전투1회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렇군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5d6+2

(1 + 3 + 5 + 2 + 4)+2

= 17

....에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영력조작?



쿠사카베 린: 1, 1을 5로 바꿔요!

으가아아악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고통 효과로

2->1



쿠사카베 린: 어라

에

그럼 20이니까

실...패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능동우선



쿠사카베 린: ;ㅂ;

바이바이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린 기절



쿠사카베 린: 괜찮아 이치노스케가 있어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신성효과로



쿠사카베 린: 충격을 견디지 못 한 린은

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공격+1

그리고 바로 뒤돌아

숨어있던

아라쉬에게

《무서운 맹공》

타이밍:특수 거리:사용자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대상:사용자 코스트:없음

개요:인지력을 뛰어넘는 신체능력이나 무예를 구사하여, 노도의 연속공격을 실행한다.

효과:특수효과. [타이밍: 공격] 종료 후에 사용, 대상은 [근접상태]를 무시하고 4매스의 거리를 이동하여, [타이밍: 공격]을 추가로 1회 실행한다. 이 《탈런트》는 1전투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다.



아라쉬: 연속공격인가..



호인.: 범위공격인가요 이번에도



쿠사카베 린: (지금도 아직 전투1회추가 탈런트인듯..하고)

(선언하실듯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[심장찌르기] 육탄공격/근접상태/1체 대상에게 [형상: 창], 4d+25의 물리 대미지.



호인.: 방호합니다 거리가 아슬아슬하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마찬가지로 20



아라쉬: 일단

회피 시도

해볼게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호인.: 네넵



아라쉬: 회피..

아 20이면

크리 나와야 하네

7이라



호인.: 아..



아라쉬: rolling 2d67

(25 + 62)

= 87



호인.: 님?



아라쉬: +가

rolling 2d6+7

(6 + 5)+7

= 18

아쉽군



호인.: 방호 씁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호인.: 코스트 5 소모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방호 받고

데미지 주겠습니다.

rolling 6d6+25

(2 + 5 + 5 + 3 + 3 + 5)+25

= 48



호인.: 장갑 10

38템이네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창!

날카로운 손톱이

아라쉬에게 찰러들어갑니다.

미쳐 피하지 못한 아라쉬!

 호인.: @짓누르는듯한 엄청난 고통과 무게를 견뎌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아라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
창은 호인을 꿰뚫지만 아라쉬에게 닿지는 못합니다
"끄어어어어억!!!"

 아라쉬: "큭... 미안!"

 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헤에..동료를 대신하다니.."

 호인.: "사죄할필요가 있느냐..."

 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하지만 고통스럽지? 사실은 피하지못한 동료를 원망하고있는거 아니야?"
"아프고 아프고"
"아파서 죽을꺼같아"
"그렇지?"
@웃음

 호인.: "언제까지 그 새치혀를 굴릴수있나 보겠다!!!"

 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[종료]타이밍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난 어디?)
(는 1이군.)

 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영력회복

 쿠사카베 린: 아까 영력소모안굴려서
지금 굴릴게요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하고싶다 영력회복..)

 아라쉬: rolling 3d6

(3 + 1 + 4)
= 8

 호인.: rolling 1d6

(2)
= 2

 쿠사카베 린: rolling 3d6

(6 + 3 + 3)
= 12

 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뵙
히익



쿠사카베 린: 12소모...

그리고 영력 일단 회복을..

rolling 3d6

(1 + 5 + 6)

= 12

넵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==

3R

[개시]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없영



아라쉬: 1을 소모해서

기세 소실



호인.: 없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저기저기 너희 힘들어 보여...그러니 암전히"

"그 예쁜 눈을 넘겨주면 좋을텐데"

@손톱을 찰각 찰각



호인.: "헛바닥을 뽐아야만 네놈의 혀를 멈출수 있겠구나!!"



아라쉬: 그런 네비로스의 눈 앞에서 보란듯이 모습을 감춥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아직도 나를 멈출꺼라는 희망?"

"지금부터 그 눈에 깃든 희망의 불씨 꺼트려볼까"

네비로스 턴

준비:없음

《환혹의 마안》:마법공격/10매스/1체/반감

1턴 중 1회, 대상에게 [속성: 환각], 4d+18의 대미지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목표 호인

발동치 16+2



호인.: 이건 사실상 자동명중이나 다름없군

그래도 일단 저항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호인.: rolling 2d6+2

(5 + 6)+2

= 13

5와 2를 교환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데미지는

rolling 6d6+28

(3 + 6 + 4 + 4 + 4 + 3)+28

= 52



호인.: 결계 7이기에 꺾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비로스가

호인을 바라보자

참고있던

고통이 더 배가되어서

호인의 몸을 침식합니다.



호인.: "우아아아악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호인 기절



쿠사카베 린: (우와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흐응..다른 한명은"

@아라쉬를 찾는중



호인.: 생★명★연★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간파

rolling 2d6+7+2

(5 + 3)+7+2

= 17

실패



호인.: 일단 생명연소 영문소비는...

rolling 2d6

(3 + 5)

= 8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다음

아라쉬턴



아라쉬: 네

준비에서 그림자묵기로

3,4를 소모하고

네비로스에게 전도 부여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《변화내성 I》:상시/사용자

대상은 [상태변화: 전도]를 자동적으로 [해제]한다.

아라쉬: 아앗

히도이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헤에..거기야?"

네비로스의 눈이 아라쉬를 향합니다.



아라쉬: "찢. 넘어지지 않는나."

"하지만, 공격은 받아줘야겠다."



호인.: 영문연소로 태우는 대상은 카미야 쿄코였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아라쉬: 그럼

공격에서 영웅혼의 일격

3을 소비해서

네비로스에게 공격

아 특수 써서

공격 전에



아라쉬: 3칸

이동할게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아

아이템인가

좋습니다.

회피치 16+2

는

회피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수동이지

회피는 그대로

16



아라쉬: 기습은

유지되는거죠?

rolling 2d6+9

(3 + 6)+9

= 18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준비를 사용했기에 이미 은밀은 풀렸조



아라쉬: \dmr

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하지만 그래도 성공?



아라쉬: 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데미지 주세웁



아라쉬: rolling 2d6*2+21

(6 + 5) * 2 + 21

= 43

33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장갑 5

28템!

다음 린치노스케

린은 전투불능

이치노스케



쿠사카베 린: 흐으으

린치라니



아라쉬: 네비로스가 넘어지질 않자, 빠르게 뒤로 물러서며 화살을 쏘고 착지합니다

-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손으로 얼굴을 가려 막습니다.

"아파..아프네에"



쿠사카베 린: 일단 고통에 걸려있어서 데미지낼때 하나가 1로 바뀌는 군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손으로 박힌 화살을 뽑는다



쿠사카베 린: 이동하지 않고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너도 느껴볼래? 이 아픔을"



이치노스케: <정밀사격>

대상은 눈깔왕자



호인.: (눈깔왕작ㅋㅋㅋ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ㅋㅋ



이치노스케: rolling 3d6+17

(1 + 6 + 6) + 17

= 30

이미 낮은 눈이 1이다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NPC의 경우는

판정 -2취급

데미지는 판정이 아니잖.



이치노스케: 어라 애 NPC취급이었군요

아 글고보니

명중했나

데헷페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회피치 16이니
-2하면?



이치노스케: 몽중치 14...
구와아아악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차라리 그러면 고통을 지우는게..?



이치노스케: NPC로적용될 줄 몰랐...
그냥 얌전히 고통을 지우죠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다음 호짱
"너 대단하네"
"그 고통을 견뎌내다니"
@눈만돌려 호인을 바라본다
"뭐 한계인가?"



호인.: "후우...후우..."
"허굴릴 시간이 남는가보구나!!"
아이템 여러번 사용 가능한가여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1번
타이밍소모는



호인.: 흠터레스팅
활력수 하나 써서
아니다
그냥 준비는 넘어가고
어쩔까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헤이 나랑 정면으로 붙을생각?"
@손톱을 착착



호인.: "어디 받아봐라!!"
영문 연소
세실리아 데빌아이
아
하나만 가능한가
한가지효과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렇죠
일단 회피치는 16



호인.: 하나가 1이 되니까으음
영문연소 데빌아이
물리초월 다이스 +3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흠 공격에 쓰시는건가



호인.: 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회피치 16이라 호인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을꺼라 생각하지만
뭐 좋습니다!



호인.: 어라 고통상태라서요
이거 영력조작 가능하려나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낮은 다이스 1개 ->1로 바꾸니



호인.: 명중이 8이니까...
7해도 15군여
혹시 고통으로 바뀐 다이스도 영력조작 할수있다면
바뀔지도;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무조건 1로 취급이라
바뀌도
바뀌도 낮은수가 되니까
다시 1
그렇네요 그럼 연소 3D?



호인.: 네
그리고 천지공 + 영위격으로
랭크 +2
각각 3 6 소모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명중 올려주시구



호인.: 명중률 갑니다잇!!

rolling 5d6+8

(5 + 2 + 5 + 1 + 2)+8

= 23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명중



호인.: 가장낮은게 1이야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데미지 롤



호인.: rolling 2d6+17

(6 + 2)+17

= 25

24+17

41

장갑이 5니까

36데미네요

천지공효과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호인.: 네비로스 기준
위로 3칸 옮깁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여긴가요



호인.: 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옥.."
세실짱노 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쫄알 쫄알 시끄럽네 아까부터."
@짜증스런 어투로 한마디 던지고...



이치노스케: (BGM두개가 번갈아가면서...!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소생마술, 대상은 린.

rolling 2d6+8

(2 + 2)+8

= 12



쿠사카베 린: (흑흑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펄름이 아닌이상
성공이죠
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3> 2fkd 교환.
기절 제거, HP1
"...날 원망하도록 해."
@착잡하게 중얼거리며 십자가를 휘둘러 린의 정신을 되살려내요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.....뭐야?"
"왜 다시 일어나는거지?"
"고통스럽잖아..? 계속 누워있으면 편할텐데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글쎄, 본인이 원해서 일어나는게 아닌걸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뭐 좋아 다시한번 고통을 느끼게 해주면 될뿐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불쌍한 악마야. 악마보다 더 악마같은건..."
"인간이란 걸...보여주도록 할게."
@씨익, 비린 웃음을 띄웁니다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==
종료타이밍
영력회복



호인.: rolling 2d6

(4 + 5)

= 9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6

(1)

= 1



쿠사카베 린: 종료타이밍 영기율 5->4



아라쉬: rolling 4d6

(1 + 1 + 2 + 3)

= 7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11



호인.: 아 영문소비를 안했네
지금 갑니다

rolling 3d6

(2 + 5 + 3)

= 10

아슬아슬하군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오케이
그럼
[개시]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없음



쿠사카베 린: 없습니다



호인.: 놈



아라쉬: 기세 소실
1을 사용해서
은신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좋습니다.
===
네비로스 턴
"아까부터..한녀석이 귀찮게 구네.."
간이이동
공격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《환혹의 마안》:마법공격/10매스/1체/반감
1턴 중 1회, 대상에게 [속성: 환각], 4d+18의 데미지.
이치노스케



호인.: 1노스케



쿠사카베 린: 와
저항이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발동 18



쿠사카베 린: 죽었습니다
데미지 계산할피로도없이...



호인.: 이치노스케에에에에에!!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이치노스케 평
"송사리는 제거"



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 재가 되다
산산조각나서 터진 기계부품과 숨이 바닥에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다음은"@린을 바라본다.



쿠사카베 린: "흑..!"
@슬퍼할 틈도 없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그표정..좋은걸"



호인.: "린...내근처로 오거라...!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다시..느껴봐"



쿠사카베 린: (으앙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환혹의 마안



쿠사카베 린: 영문연소해서 저항...
연하남 지우고 2D추가합니다

rolling 4d6+6

(3 + 4 + 4 + 5)+6

= 22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 성공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
(2 + 6)

= 8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린은 다시



쿠사카베 린: "버.. 버텼다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고통이 엄습해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으아아아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하지만 익숙(?)해진건지

넘기는군요.

다음

아라쉬

네비로스는

차폐



아라쉬: 흠

준비에서



호인.: 아악



아라쉬: 1,2 소모해서

그림자 부수기

8칸 이동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음

차폐 무효화..!



아라쉬: 공격에서 영웅혼의 일격

전도는

안받더라도

공격은 받아라!!!



호인.: 주거라아아아



아라쉬: rolling 2d6+7

(2 + 3)+7

= 12

아앗



호인.: 앓...아아...



아라쉬: 다이스가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앓아아..

회피 16



아라쉬: 7에서 16이상이 나오려면

9 이상이 나와야 해...



호인.: 영력조작이 필요하다

영력조작이!!

2만 6으로 바꾼다면...!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하지만 아라쉬의 능력은
전멸



호인.: 꼬아아앙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너를 기다리고있었지"
갑자기 아라쉬가 나타나면
획 몸을 돌려 몸을 피합니다.
"내 눈을 피하다니 제법이야"
다음
린짱



아라쉬: "그것 참... 기쁘지 않은 칭찬인데?"
화살이 빗나가자 혀를 차면서 다음 시위를 겁니다
-



쿠사카베 린: 이익



호인.: (전투이동...아직 2칸남았다...!!)"



쿠사카베 린: 일단 준비로 잇짱 컴온
이걸로 영문 -24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너의 령문은..!!!



쿠사카베 린: 그리고 저는 공격타이밍을 써서
음, 둘 중 하나만 회복할 수 있나요 상태이상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

쿠사카베 린: 음... 그럼 암흑을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러고보니 호인이랑 린



쿠사카베 린: 린은 종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행동치 -2배였지



호인.: 아 그러네요



쿠사카베 린: 어라 그러고보니
세실리아보다 느려야했네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뭐 린은 지나갔으니
패스하고
호인은 4로



쿠사카베 린: 네넝



호인.: 다세실리아으 턴



쿠사카베 린: 아 아니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다음 세실리아 턴



쿠사카베 린: 저는 11이 줄인 거였어요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ㅎㅇ
가벼운 린짱



쿠사카베 린: 으앗 깜짝놀랐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역시 온나노코



쿠사카베 린: 잇짱..



호인.: 저도 수정했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세실짱



호인.: 무거운 호인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대.기.^^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쿠사카베 린: 잇짱의 턴이 아직이다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호인턴



호인.: 한번 맞으면 죽는 너덜너덜한 몸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



쿠사카베 린: 아 행동종료로 소환되던가
(뒤적)



호인.: 활력수 사용으로 20회복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

쿠사카베 린: (긋)



호인.: 전투이동



쿠사카베 린: (종자룰은 이래서!)



호인.: 공격타이밍 소모로 고통 제거
"우아아아아아!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좋습니다.
다음 세실짱
"흐음 아직도 할생각?"



호인.: "물론이다!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흠...
@전력이동



호인.: "나를 멈추고싶거늘 혀만 굴리지 말고 직접 숨을 끊어봐라!!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차폐



호인.: *우리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엔드
@잡싸게 위치를 바꿔서 다시 숨는군요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뭐 좋아..다시한번 느끼게 해주면 될..뿐"

[종료]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쓴게 없으니...



호인.: "고통을 주는것만으로는 우릴 멈추지못하리라!!"
@쿠와아아앙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영력회복



아라쉬: rolling 4d6

(2 + 5 + 1 + 2)
= 10



쿠사카베 린: 종료 영기율 6->5



호인.: 소모 영력 없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영력회복해주시면..
이제
[개시]



호인.: 없습니당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다시한번 영원의 고통속으로.."
네비로스가 눈을 감고



쿠사카베 린: (으아아아아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왕관에서 빛이 나옵니다.

《지옥의 감시자》:개시/사용자/사용자

이번 턴동안 자신의 행동력을 1로 변경한다.이 행동치 변화에는 탤런트나 아이템,추가효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

이후 자신의 턴이 돌아왔을때 상태변화[차폐]가 아닌 대상들 전부에게 상태변화[고통]을 부여하고 대상이 장비하고있는 장비의 -행동력을 2배로 하며 [고통]상태이사이 해제될 동안 지속된다. 1전투에 2번 사용가능하다. 이 탤런트는 타이밍을 소모하지 않는다.

개시 없으신?



아라쉬: 기세 소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못씀...



아라쉬: 1을 사용하여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아라쉬의 턴



아라쉬: 준비에서

간이 이동

특수에서 차폐

공격에서 영웅혼의 일격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회피 16



아라쉬: 영문

태울까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령문도 태우고 공격에도 태우고



아라쉬: 음

령문을 써서

명중 판정에

+2d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오시죠



아라쉬: rolling 4d6+7

(5 + 2 + 5 + 4)+7

= 23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명중



아라쉬: rolling 2d6

(2 + 4)

= 6

6 소모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데미지 롤



아라쉬: 아 기습 유지구나

이번엔

rolling 2d6*2+26

(6 + 6)*2+26

= 50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?

???

??????



아라쉬: 38



호인.: 굳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깜짝아

명중에 저게 떴으면

장갑 5



아라쉬: "후우..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....."

화살이 박힌체로



아라쉬: "이런말, 하고 싶지 않지만. 보구를 쓰고 싶어 지는걸..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집중



아라쉬: -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린

턴

이치노스케랑



쿠사카베 린: 흐냥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잘만하면..

죽겠는데



호인.: 고통이 없어져서 제 턴이지만

린이 막타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녀 전부 때리면..



쿠사카베 린: 이번 턴 내에 죽일 수 있을지 아닐지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간신히..?



쿠사카베 린: 데이터 공개가 안 되었으니

안전빵으로 가죠...



호인.: 그렇긴 하네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일반 반피 이하임



쿠사카베 린: 저 여기서 영문 더 쓰면 진짜 무리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저항 16



쿠사카베 린: 통상이동으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이치노스케야 이제 고정치 돌아와서 명중빵빵



쿠사카베 린: 아 여기다

이동하고

공격으로 고통해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쿠사카베 린: 턴 종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이치노스케짱



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는

어 그러고보니

차페는 근접상태처럼

네방향으로만 적용인가요?

(그러고보니 차페선언안했다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렇죠
뭐 선언한거로 치죠



쿠사카베 린: 호인이는...날 뛰어넘어줄거야
응...
잇짱 통상이동 차폐
턴엔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다음
세실짱



호인.: 저는요ㅠ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잊혀진 그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 고통
지우셨지
호인짱



쿠사카베 린: 아 고통 지우셔서
저 보다 먼저셔야했어!
으켵



호인.: 사실 별거 없어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턴오더만 보고 하다보니



호인.: 세실먼저 해도
문제 없었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햇갈렸네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저도 할거 없어서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자자 호인턴



쿠사카베 린: 턴오더가 수동인게 문제야!



호인.: 아이템 사용 = 금지옥엽의 패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님들 안죽으면 할거 없어요!)



쿠사카베 린: 숫자에 맞춰서 자동으로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롤20의 한계인거시다.



쿠사카베 린: (우왓 문제발언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데헷☆)



호인.: 전투이동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(좋아 세실을 때리자)



호인.: 영력모으기 4->6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히익 다굴맞아버렸



호인.: 영문연소 개념파괴
린 연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일단 명중부터 하셧!



호인.: 천지공(6) + 영위격(5)

rolling 2d6+9

(5 + 4)+9

= 18

네 명중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명중
데미지 과연..!



호인.: rolling 1d6 개념파괴를

(2)

= 2



쿠사카베 린: (아 그러고보니 일회용 주물이라는 아이템을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..



호인.: 랭크 +2



쿠사카베 린: (갖고 있었어...)
(...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이템 은근 쓸만한거 많..



쿠사카베 린: (데헛페로)
(도짓코라니깐)



호인.: 썸 시원찮은 데미지가 나오겠군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오시쵸



호인.: rolling 2d6*5+17

(6 + 6)*5+17

= 77

30+17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다들
데미지에만 나와



호인.: 47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장갑 5
42데미



호인.: 위로 3칸 이동
시킵니다
어디서 차페하고 있어!@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
@무릎을 꿇습니다.
다음 세실짱



호인.: "오너라 다른이들의 고통을 내가 전부 받아낼테니!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없 턴엔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드디어
네비로스의 턴
@눈이..번쩍..
다시 빛을 빼앗고
호인에게는 영겁의 고통을 선사합니다.



호인.: "그으으으음!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하하하..아팠다"
"돌려줄차례에!!"
전투이동
아라쉬에게
@심장찌르기



호인.: "둘것같으냐!!!"
@방호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명중 20



호인.: 아라쉬 회피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영압이 사라지셨다



호인.: 아라쉬의 영압이...!!
일단 방호 갈게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급한대로 대리받죠



호인.: 아라쉬 회피로부터 하겠스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


호인.: rolling 2d6+6

(3 + 1)+6

= 10

아라쉬의 영력을 모르기에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싯빠이

아라쉬: 아



아악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Ang?



호인.: 방호(5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라쉬님
오셨으니
다시해보시죠



호인.: ㄱㄱ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본인이!



아라쉬: 크리가 안뜨면
못피함!

rolling 2d6+7

(6 + 6)+7

= 19

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?



호인.: 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영력 임의눈으로 바꾸시고?
아라쉬에게



아라쉬: 2 하나를 6으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다시한번
찌르기가 들어가지만



호인.: 방호는 안해도 되겠군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헤에 피한거야?"
"그럼 이건어때?"



쿠사카베 린: (우와아아아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[무기공격]:육탄공격/근접상태/범위 대상에게 [형상: 검], 4d+20의 물리 대미지.



호인.: 한번 더 회피롤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명중 20



아라쉬: 음
기껏
피했는데..



쿠사카베 린: 아 지금 방호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찌르기를 피하기



호인.: 어차피 님이 안맞을걸요



쿠사카베 린: 못 하는 거려나요
아 호인이 해주나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옆에서



아라쉬: rolling 2d6+7

(4 + 5)+7

= 16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빠른속도로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나 대기한걸로 하고 싶어...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손톱이 날라옵니다.



호인.: 이치노스케가 하는걸로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좌악



쿠사카베 린: 그럼 영기흡인쓰쥬
4를 써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rolling 6d6+20

(1 + 5 + 5 + 4 + 2 + 6)+20

= 43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계산이 끝난 후 그 데미지를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43데미



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가 받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나니잇!?



쿠사카베 린: 장갑6이니까...
5남기고 너덜너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무튼



호인.: 호인이 맞았어도 너덜너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장애물도 모두 찢깁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범위가 전투지대라 사랑스럽다)
아 그러고보니차페라
데미지 -5!



호인.: 아 뭐야 저거
범위여서 방호 못했...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하하하하! 죽어 죽어버려!"



쿠사카베 린: 차폐물삭제...ㄷㄷ
일단 저 공격은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끝



쿠사카베 린: 이치노스케가 달려들어서 막았다고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[종료] 타밍



쿠사카베 린: 희생을 위한 희생
영기율 5->4
영기회복

rolling 1d6

(4)

= 4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군



쿠사카베 린: 쿵 4가 나와버렸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영력 회복!



아라쉬: rolling 2d6

(2 + 3)

= 5



호인.: rolling 2d6

(4 + 6)

= 10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자그럼 바로
[개시]



쿠사카베 린: 없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없어...!



호인.: rolling 2d6 개념파괴 영문소모

(3 + 6)

= 9



아라쉬: 기세소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《사신의 응시》:개시/10매스/범위/저항불가능
대상은 [상태변화: 암흑]이 된다.



쿠사카베 린: 음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대상 호인



쿠사카베 린: 호인이 ㅋㅋ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호인의 시야가 다시 빼앗깁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호인이 개롭히지 마요...)



호인.: "...."

@침착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비로스 턴

"고통의 절망해라!"

@아라쉬에게

[심장찌르기] 육탄공격/근접상태/1체 대상에게 [형상: 창], 5d+21의 물리 대미지.



아라쉬: 은신상태인덴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



호인.: ㅋ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그러네

은신이셨군

무기공격:육탄공격/근접상태/범위 대상에게 [형상: 검], 4d+20의 물리 대미지.

범위로 때려드리지요



호인.: ...



쿠사카베 린:

@영기흡인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라쉬가 있던자리를
쓸어버리겠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가라 이치노스케
너는 희생이 된 거시다



호인.: 이치노스케에에에에에에!!!



쿠사카베 린: 희생을 위한 희생이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일단 명중 20



아라쉬: 아아아
회피!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데미지를 전부 인형이 받습니다



아라쉬:

(+)+7

= 16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네
실패



아라쉬: 아아아아!
(핑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rolling 6d6+20

(3 + 6 + 1 + 6 + 5 + 2)+20

= 43



아라쉬: 이거 공격 받으면
은신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43데미



아라쉬: 풀리나요?



호인.: 이치노스케가
받습니다



아라쉬: 아아..
이치노스케
니노스케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이치노스케



아라쉬: 산노스케..



호인.: 아 그렇군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스고이



호인.: 2노스케였지



쿠사카베 린: 송고한 희생이었습니다
이치노스케는 아라쉬의 앞에 달려들어
대신 갈려나갔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좌악!!
"하하하! 한번더!"



쿠사카베 린: 다음의 인형은 훌륭한 트러블슈터겠지요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[무기공격]:육탄공격/근접상태/범위 대상에게 [형상: 검], 4d+20의 물리 대미지.



호인.: 범위기좀 그만 때려라ㅠㅠ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명중 20
은신이라 못패거든요



쿠사카베 린: 이건 못 막아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이동하면 팸 수 있잖아 소곤)



쿠사카베 린: 진짜 사악하다.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회피해주시지요



호인.: 아라쉬의 회피!



쿠사카베 린: 크리떠라 크리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쫄랑쫄랑 은신으로 도망치다니!
갈려나가라!!



쿠사카베 린: 우왓 문제발언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이런 본심이



호인.: 방호좀...하게해줘...



쿠사카베 린: 호인이... 애껴옷...



아라쉬: 큼

rolling 2d6+7

(4 + 5)+7

= 16



호인.: 가라아라쉬
는ππ



아라쉬: 퍼어어억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rolling 6d6+20

(5 + 6 + 2 + 6 + 3 + 3)+20

= 45

45데미



호인.: 괜찮아
버텼다!



아라쉬: [장비] 중 1턴 1회 받은 [물리데미지]에 -3 한다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아라쉬: 장갑 4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42데미



쿠사카베 린: 아라쉬이이이이이



아라쉬: 38데미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38
쥬것..나?



호인.: 아녀
안주것습니다



아라쉬: 이거
저번 전투에서
생명력
회복
된건가요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뇨



쿠사카베 린: 어 본인이 안 꺾였으면...



아라쉬: 털썩
-



호인.: 어라
사망



쿠사카베 린: 어라



호인.: 이 아니라 기절



쿠사카베 린: 으갸아악
우리 딜러가!
"아라쉬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라쉬는



호인.: 괜찮아 세실리아가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계속되는 공격에



호인.: 다해줄거야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결국 버티지못하고..
쓰러져버립니다.
"아..이감축은"
"달았구나..하하하하!"
다음
아라쉬는 기절



아라쉬: 죽기 직전의 보스가 발악을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손톱을 핏으며



쿠사카베 린: 어.... 이번턴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린짱노 턴



쿠사카베 린: 어디보자 세실이 아라쉬를 살리, 아니



아라쉬: 생명연소



쿠사카베 린: 생명연소 아직 남았쥬 아라쉬?

으극 결국 다음턴인가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연소 하시나



아라쉬: 데빌아이에 대한
모멸의 감정을 불태워
일어섭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히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굳이 살아나서 딜을 하시는..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하하 베었어"
2d소모



호인.: 반드시 주긴다맨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고통 고통 고통!"



아라쉬: rolling 2d6

(2 + 3)

= 5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5소모
아라쉬 행동해주시죠



쿠사카베 린: 아라쉬의 터어어언!



아라쉬: 홀수가 없다..
아까 2랑 5랑 교환해놔어야 했는데



호인.: 영력모으기는



아라쉬: 결과 안바뀌는데 했던걸로 해도 되나요<<



호인.: 어디로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흠 너무 늦었죠!



아라쉬: 예스
그럼 공격은 그냥



호인.: 공격타이밍에 영력모으기 쓰세요
영력모으기 패널티 아무것도 없음



아라쉬: 영력 모으기 쓰면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공격 타이밍을
소모하니까요



호인.: 소모하는구나
넴



아라쉬: 공격 타이밍이 써지니..
그냥 일반 공격에

양식을 더하겠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넵



호인.: 주거라



아라쉬: 명중에 +1



쿠사카베 린: 다음턴 날아오는 공격은 이치노스케로 어찌어찌 대처한다고 쳐도...



아라쉬: 이거 은신은



호인.: 주거라!



아라쉬: 풀린것으로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아뇨

미스만 하지않으면



호인.: 뭔가 경쾌한 음악이 나오기시작했다



아라쉬: rolling 2d6+9

(3 + 1)+9

= 13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마무리겠ㄴ...



아라쉬: 1을 6으로



쿠사카베 린: 앓

후우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명중



아라쉬: rolling 2d6+26

(1 + 3)+26

= 30

29물리데미지

자자! 좀! 네비로스!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장갑 5

프로핏



쿠사카베 린: 드,,,,디어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남은체력 24



호인.: 호오



아라쉬: 그럼



쿠사카베 린: 으앙 ㅠ



아라쉬: 쓰러진 줄 알았는데
투명했던 아라쉬가



호인.: 린에게 말긴다!



아라쉬: 네비로스 위에서 나타나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마무리예요



아라쉬: 화살을 쳐박습니다



쿠사카베 린: 에 남은 체력 24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24뎀에 24뎀맞고
죽음



호인.: 그렇군
스바랏시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는
저번에도



아라쉬: 저스트 킬러의 아라쉬



쿠사카베 린: 아 딱 0되서 죽었다고.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딱맞춰서 죽이시는게 자주..



쿠사카베 린: 흐으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....!"
"아..아아...아아아아아아!!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....



아라쉬: "후우...!!!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아파...아파...!"
전투 종료
"나에게 잘도..이런 고통을 주다니..."



아라쉬: "미안하네... 이 몸은 건강한 것 만이... 장점이라 말이야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아아..아파.."



아라쉬: -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아아.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까도 말했지만..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네비로스
"내 몸이...사라져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악마보다 더 악마같은게 인간이니까."
@천천히 걸어나오네요. 계속 아군을 살려서 싸우게 만든 장본인...



호인.: "지옥에서 고통받은 자들에게 사죄해라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"으으..너"

"아아 결국...찾지 못했어.."

"죄송합니다."

@사르르륵...



아라쉬: 아 저

کم 좀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@몸전체가 가루가 되어 사라집니다.



아라쉬: 옮길게요.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익..이제 끝이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쿄코의 눈은..."



호인.: "...."



호인: @뽕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통..투통.

네비로스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자

그곳에는 황금빛 단편과

네비로스가 가지고있던

통

그 통도 서서히 빛이 되더니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눈들과 함께

본래 있어야될 장소로 빛의 입자가 되어

사라집니다.

전투종료



호인: "...해냈구나"



쿠사카베 린: 메데타시메데타시...

"이... 이겼다아..." @주저앉습니다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여러분은 아라미타마를 처치함으로써

쿠시미타마를 얻었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콧시미타마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



호인: 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린은 과도한 령문 소모로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싸우겠다는 마음이 계속되는 한...계속 싸울 수 있었을거야..."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몸안에서 붕괴의 조짐이 보입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엄마야)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생명력의 한계를 넘은 대가



쿠사카베 린: (하지만 쿠시미타마만 있으면 만사오케이! 이 구성이 단돈 39800원!)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이대로라면
린은 그 몸을 유지 못하고



쿠사카베 린: 회복하게 해주...

ㅠㅠ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방금 사라진 아라미타마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지도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막을 수 있는 방법은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령문 회복!



쿠사카베 린: 영문회복대스

쿠시미타마는

1개인거죠?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여기서 본세션은 마무리하고 령문의 처리를 실시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후우..

2세션에 캐릭로스트라니

제발...



지옥의 감시자 [네비로스]: 쿠시미타마도 있으니

여유겠쥬



Kaming (GM): 령문회복 2배ㅋ



아라쉬: 저도 마이너스 령문



Kaming (GM): 자 그러면 령문 -인 분은



호인: 저도 마이너스네요



쿠사카베 린: -24에서 돌아올 수 있을 거신가



Kaming (GM): 각자 령문을 회복하는 묘사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널널한 14...



Kaming (GM): 감정을 모아세...!!



쿠사카베 린: 퇴마사협회의 어른들에게 받은
수상한 영력회복알약만 먹으면



호인: 저는 굴린 후에 할게요

rolling 2d6

(1 + 5)

= 6

아 결국 써야하는구나 쿠시미타나

마

12로

왓지 억울하네



Kaming (GM): 쿠시미타마는
1회용이라



쿠사카베 린: 일단 쓰러뜨린 적 합계만큼인 7



호인: 아?
그리고보니
레벨합계
그거를 못들었



쿠사카베 린: 다들 4이하라



Kaming (GM): 네



쿠사카베 린: 1씩입니당



Kaming (GM): 4렘 1 3렘 1



쿠사카베 린: 자코가 저번에 5마리였으니까
7일듯



호인: 그럼저 쿠시미타마 안써도 됩니다



Kaming (GM): 네
회복회복



쿠사카베 린: 회복량2배는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전부2배인가요?



Kaming (GM): 호인은 생명력의 한계를 넘은 몸을 지탱합니다.



아라쉬: rolling 2d6

(2 + 1)

= 3



Kaming (GM): 마지막 부분만



쿠사카베 린: 아 감정회복만..2배



아라쉬: 회복 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일단 -17까지 회복



Kaming (GM): 아라쉬 죽는줄알았네
깜짝아..



아라쉬: 0까지 회복



Kaming (GM): 아슬..



쿠사카베 린: 감정이 7개니까
4d6굴리고 여기에
쿠시미타마로x2



호인: 태운 감정은



쿠사카베 린: ㅠㅠ



호인: 안굴리는줄 알았는데



쿠사카베 린: 어라 감정개수만큼이 아니라



Kaming (GM): 가지고있는 감정 갯수 만큼이니까요



쿠사카베 린: 아 맞죠맞죠



호인: 머 그래도 어차피



쿠사카베 린: 그럼굴립니다

여유롭군

rolling 4d6*2

(2 + 5 + 4 + 5) * 2

= 32



Kaming (GM): 안그러면 너무 힘들어



쿠사카베 린: 여유우



아라쉬: 스텔라 커피를 마시는 걸로 영문이 회복..



Kaming (GM): 쿠시미타마는 바로 쓰시는거군

ㅋㅋㅋㅋ

스텔라커피



쿠사카베 린: 어쩔 수 없잖아요

쿠시미타마안쓰면 로스트라구!



Kaming (GM): 네 그러면

린의 무너져가는 몸에



호인: 십이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는것만으로 영문 회복



Kaming (GM): 아라미타마를 쓰러트리고 난뒤



쿠사카베 린: 아 하지만 안 쓰고로스트한 뒤, 사이보그로 부활해서 근접캐릭터로 활약하는 방법도 있군요



Kaming (GM): 나온 황금빛 단편이

다가옵니다.

그리고...린의 몸의 붕괴를 잠재우기 시작합니다.



호인: "다들 고생했구나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난 한거 없어."



쿠사카베 린: "이걸로 오늘도 사건 해결.... 인 거네!" @허탈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쪽이 고생했지."



호인: "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것만으로 충분하다"
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대로 몸을 돌려서 먼저 걸어나가요.
-  호인: @호텔의 옥상에서 아래 전경을 바라봅니다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먼저 가볼게.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."
-  호인: "그렇게 하거라"
-  쿠사카베 린: 너덜너덜해진 이치노스케를 주우면서
"후우... 집에 가면 멋지게 고쳐줄게!"
-  Kaming (GM): 호텔의 전경은 밤의 켜진 전광등에 비쳐 도시가 매우 아름다와 보입니다.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, 그대로 옥상에서 뛰어내리죠.
-  Kaming (GM): ㅅ..숏고이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탈인간 카미가카리니까, 이 정도는...
-  Kaming (GM): 체력 판ㅈ...
읍읍
-  호인: "이것으로...고통받는 생명이 조금은 줄었으면 좋겠구나..."
-  Kaming (GM): 여러분은 무사히
사건을 해결했습니다.
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위협은 계속되겠지요.
대영맥의 주인 사쿠야가 이곳에 있는한...
-  아라쉬: "모두들, 돌아가서 꼭 쉬어."
아라쉬도 집 방향으로 뛰어 오르면서
기세소실로 사라집니다
-
-  호인: "..."
-  쿠사카베 린: (만약의 근원 사쿠야..)
-  호인: @전경을 잠시 바라보며
"혼자 갈수 있..."
-  쿠사카베 린: (자양강장제 같은 거 먹고 빨리 회복점...)
-  아라쉬: (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. 생각해보니까 빌린 차를 뺏겼었고 린을 태워다 줘야 해.)
-  호인: "아니 괜한걸 물어봤구나"
-  쿠사카베 린: (ㅋㅋㅋㅋㅋㅋ)
-  Kaming (GM): (아라쉬"개무안..")
-  호인: "...그럼...내일보마"
-  쿠사카베 린: 원래 에필로그는 좀 어설퍼야하는법
-  아라쉬: 혼자 활동할때의 버릇이었던 거야)
-  호인: @둘에게 작게 미소짓고



쿠사카베 린: "잘가 호인짱"

@흔들흔들 손



호인: 호인은 도시의 전경 너머로 뛰어나갑니다

@흔들어주는 린에게 미소짓습니다



Kaming (GM): 무사히 하사시로 시에 평화를 되찾은 여러분

잠시동안의 평화로 지친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를..

=====

수고하셨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그러고보니 저 뱀하고 아라미타마는 갈무리가 없군요

수고하셔씁니다



호인: 고생하셨습니다

쿠시미타마 먹었음



Kaming (GM): 아라미타마는



호인: 그걸로 된거죠



Kaming (GM): 전리품이

쿠시미타마



쿠사카베 린: 쿠시미타마는 그리고 제가 썼다고..

콧



Kaming (GM): 경험치 타이무



쿠사카베 린: 경험치! 경험치!



Kaming (GM): 일단

에너미로 인한 경험치는

닌텐더 3 x2

빅 아이즈2 x2

비홀더3 x1

나락3 x1



Kaming (GM): 아라미타마4 x1



아라쉬: 고생하셨습니다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흠



Kaming (GM): 법칙장해 10x2

임무 성공 50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90



Kaming (GM): 아라미타마 퇴치 50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140



쿠사카베 린: 감정제거

Kaming (GM): 감정1 빼고 전부 제거



쿠사카베 린: 아, 인연소거...

6x2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140+10



쿠사카베 린: 152

후 이걸로

레벨3입니다

환수데이터를 내노아라!



Kaming (GM): 고토와루



쿠사카베 린: 나니이잇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렵업 얼마인데요?



쿠사카베 린: 3으로 오르는데 150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150 저스트군

알피보너스 이런건 없는거군



Kaming (GM): 오늘부터



호인: 소거한 인연은 4개니까



Kaming (GM): MVP뽑아서



호인: 경험치는 8인가



쿠사카베 린: 쿠시미타마 하나 소비<<이건 쿠시미타마를 팔면 3000G라는 거죠?



Kaming (GM): 10점 드릴려구요

여러분 투표로



쿠사카베 린: 오호



Kaming (GM): 이번 세션동안

가장 훌륭한 RP를 하셨다는 분에게 투표를



쿠사카베 린: RP였다!



Kaming (GM): 그러하다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면 아라쉬압승



Kaming (GM): 전투에 MVP는 그렇잖앙



쿠사카베 린: 힐량이면 세실리아 압승



Kaming (GM): 각자의 역할이 충실할꺼데!



쿠사카베 린: ㅋㅋㅋ



Kaming (GM): 누가 우위다 정하기 좀 그러니

저분의 RP를 보고 감명받았다

라던가

하시는분에게 투표해주세요



쿠사카베 린: RP는 분위기에 맞춰서 맞장구친 정도밖에 안 했다보니...
아직 갈길이 멀궁



호인: 저도 그리 눈에 띄는 RP를 하진 못했네요



쿠사카베 린: 호인은 캐릭터가 딱딱하다보니, RP를 잘해도 눈에 띄기 힘들...



Kaming (GM): 린 경험치가 152 세실리아가 150 호인님은?



호인: 158입니다



Kaming (GM): 158

슛고이
아라쉬는?



호인: 미친듯이 인연을 소거하다보니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최대 7개라 12가 맥스 아닌가...
인연경험치는..
기본 140+인연경험치 일텐데



Kaming (GM): 그렇죠
인연은 최대 12



호인: 기본 114이구나
140이구나



Kaming (GM): 전에 남은게
있다면



호인: 전에 남은게 몇이었더라
가물가물



Kaming (GM): 으무..?
기입 안해두셨냥



리포: 시트에 표기를!



호인: 108이였고



Kaming (GM): 100소모해서 업하셨으니



호인: 이번에 148



리포: 100쓰고 2로 업했으니 8이었겠네요



Kaming (GM): +인연태우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태우면 경험치 또올라요?



Kaming (GM): 감정 1 제외한 나머지 다 태운만큼



호인: 전세션에서 108
이번 세션에서 148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등록한 개수만큼 2 받는게 아니라?

Kaming (GM): 맞아요

등록한갯수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념



호인: 등록된 갯수대로 한다면

154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내가 잘못계산했나 했넹 저스트업 맞군...



호인: 152

구나



Kaming (GM): 감정1 제외하고니까



호인: 150

잠시



Kaming (GM): 네



호인: 헛갈리는데

7개 넣었으니까

1개뺀

12

152



Kaming (GM): 그렇죠



호인: 레벨업하고

10남습니다

이번엔 시트에

제대로 기입해야지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이제

홀수로 힐이 써지는군

후후후



리포: oh...



Kaming (GM): 카미가카리들이 가장 강하다는

3레벨 구간

제가 직접한번 경험해보겠습니다.

와아앙아아 ㅏ악

무튼

정말 늦은시간까지



Kaming (GM): 고생하셨습니다



호인: 고생하셨습니다